【1】 月刊 登錄라－2448號 1988. 11. 9 第 3 種郵便物(나)級認可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0년 3월 1일 제144호

同窓會 指標

•參與
•協力
•榮光

·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울大學校 同窓會報

發行人 崔 主 鎬
編輯人 李 聖 秀
印刷人 崔 瑞 泳

發 行 所
서울大學校 同窓會
郵便番号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南 桃花洞 18-2
電話 : 702-2233～5, 717-8536～7

●銀行지로番号 : 7500875
●對替口座서울 : 010017-31-0621565

# 同門 드디어 18萬

**最高의 知性배출** 2월 26일 거행된 卒業式으로 동창회는 6,420명의 새 會員을 맞았다. 최고의 知性과 能力을 갖추고 社會에 첫발을 내딛게 된 신입회원들의 늠름한 모습이 믿음직하고 자랑스럽다.

## 冠岳春秋

## 新入會員을 歡迎한다

지난달 26일을 기해서 우리 同窓會는 新入會員 6천4백20명을 맞게 되었다. 신입회원은 博士 2백18명 碩士 1천7백58명 그리고 學士 4천4백4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 博士, 새 碩士는 대부분이 母校出身인 까닭에 그 모두가 신입회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새 學士 4천여명은 모두가 신입회원이다. 기왕의 회원을 17만3천여명으로 볼때, 이번의 新入會員 영입으로 同窓會員總數는 18만에 이르게된다. 이 숫자는 국내의 다른 어떤 대학의 同門숫자보다도 많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동문의 자랑과 긍지는 그러한 숫자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社會에서 다른 어떤 大學의 卒業生을 일시에 빼낸다 하더라도 우리사회는 별로 큰 지장이 없이 굴러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 卒業生이 모두 빠진 우리 社會란 지탱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어느 同門이 말한 것을 기억한다. 이말의 진위는 고사하고 이말에 동조할 사람은 반드시 우리 同門만은 아닐줄 안다.

우리의 母校가 우리나라의 高等教育界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는 여기서 새삼 따질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모든 學父母는 子女를 母校에 입학시켰으면 하는 소원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 才質이 뛰어난 英才치고 母校에의 입학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것이다. 이번의 신입회원들은 이같이 만인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母校에서 螢雪의 공을 쌓고 자랑스러운 동문의 일원이 된 것이다.

우리는 이들의 졸업을 진정으로 축복하며 아울러 同窓會에의 가입을 환영한다. 이들을 환영하는 뜻은 우리 同窓會의 번영을 위한다는 小乘的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나라 이 社會의 새로운 엘리트를 맞이한다는 大乘的 입장에서 우리는 이들을 환영하는 것이다.

여기서 참신한 엘리트가 우리사회에서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가를 따져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할것 같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온 세계가 혁명을 방불케 하는 大變動을 겪고 있다. 이러한 대변동이 지향하는 이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답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념의 中樞가 民主化에 있다는 점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民主化가 무엇이냐를 알아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민주화의 기본이 되는 自由가 결코 방종이 아님은 누구나가 시인하는 바이다. 그러나 平等이 均等과 구별되어야 함은 그다지 깊이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실정인것 같다. 民主社會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몫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각자가 자기에게 적합한 몫을 차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사회적으로 행사하는 영향력도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까닭에 어느 사회에나 그 사회에서 더욱 많은 힘을 갖는 엘리트층과 그렇지 못한 一般大衆이 있는 법이다. 이점에 관해서는 가장 민주적인 사회도 예외는 될 수가 없다. 문제는 한사회의 엘리트와 일반대중의 分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가 얼마나 有能하고 또 道德的인가에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특히 거론하고 싶은 것은 우리사회의 엘리트, 즉 지도층의 도덕적 성향이다. 오늘날 우리는 사회가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으며, 또 도덕의 부재에서 오는 많은 범죄가 범람하고 있음을 우리모두가 시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도덕적 부패와 타락 그리고 범죄의 범람도 따지고 보면 우리사회의 엘리트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 同門이 그동안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해 왔음은 많은 사람이 시인하는 바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사회의 病理에 대해서는 크나큰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自省해야할 것이다. 이점은 우리 동문이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고있기 때문에 더욱 명심해야할 것이다.

新入會員을 환영하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한다. 그들이 先輩의 뒤를 이어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이나라를 이끌어가는 역군이 되어주기를 우리는 무엇보다도 바란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선배가 해결하지 못한 우리사회의 道德의 제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의 명랑화를 위해 힘써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 끝으로 다시한번 新入會員을 환영하며 앞날의 健勝을 빈다.

# 會員 6,420명 새로 맞아

## 會則5條의거 母校 44회 學位수여자

同窓會는 지난 2월26일 會則 제5조1항에 의거하여 모교 제44회 학위수여자 6천4백20명(학사 4천4백44명, 석사 1천7백58명, 박사 2백18명)을 새회원으로 맞이했다. 이로써 본회의 총회원수는 17만9천5백69명으로 늘어났다. 〈동창회별 회원수 별표 참조, 名單 16~21面〉

회원수가 1만명 이상인 동창회는 工大(2만4천1백46명), 農大(1만2천8백52명), 法大(1만9백78명), 師大(1만7천9백90명), 大學院(3만1천20명) 등이다.

한편 새회원명부의 발간으로 준회원 1만3천3백38명이 새로 밝혀졌고 기존회원수에서도 3천6백68명의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 이번의 총회원수에는 이들 1만7천6명이 새로 가산 됐다.

◇同窓會別 會員현황

| 구 분 | 2월 졸업자 | 총회원 |
|---|---|---|
| 人文大學 | 387 | 4,348 |
| 社會科學大學 | 519 | 5,506 |
| 自然科學大學 | 391 | 4,454 |
| 家政大學 | 109 | 1,873 |
| 經營大學 | 229 | 2,493 |
| 工科大學 | 765 | 24,146 |
| 農科大學 | 499 | 12,852 |
| 文理科大學 | | 9,731 |
| 美術大學 | 128 | 2,817 |
| 法科大學 | 239 | 10,978 |
| 師範大學 | 428 | 17,990 |
| 商科大學 | | 6,723 |
| 獸醫科大學 | 65 | 1,295 |
| 藥學大學 | 90 | 4,589 |
| 音樂大學 | 178 | 4,238 |
| 醫科大學 | 209 | 7,500 |
| 看護學科 | 74 | 2,201 |
| 齒科大學 | 134 | 4,176 |
| 大學院 | 1,796 | 31,020 |
| 經營大學院 | | 701 |
| 教育大學院 | | 653 |
| 保健大學院 | 56 | 1,566 |
| 司法大學院 | | 508 |
| 新聞大學院 | | 264 |
| 行政大學院 | 86 | 2,731 |
| 環境大學院 | 38 | 878 |
| 小計 | | 166,231 |
| 準會員 | | 13,338 |
| 總計 | 6,420 | 179,569 |

## 同窓會·冠岳會 결산감사

동창회와 재단법인 冠岳會의 89會計年度에 대한 결산감사가 지난 2월27일 오전11시 동창회 사무실에서 있었다.

동창회는 嚴宗鎭감사가 (李弼善감사는 해외에나가있는 관계로 참여하지 못함), 관악회는 李燦河, 白文基감사가 맡아 세밀하게 실시한 이날 감사결과 89년도의 收支현황이 기업회계원칙에 의거하여 착오없이 집행되었음을 확인하고 감사를 끝냈다.

감사결과 89년도의 동창회 총수입은 4억7천3백33만1천1백74원이며 지출은 3억7천6백52만3천9백73원으로 약 9천6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낸것으로 밝혀졌다.

관악회는 총수입 1억9천9백76만6천1백71원이며 지출은 2억3천9백50만5천5백49원으로 약 3천9백70여만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적자속에는 회관 감가상각비 9천8백여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는 약 6천여만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 1백20명에 5천6백만원

## 1학기 동창회 奬學金 지급

本會를 비롯한 각 單大동창회에서는 지난 2월 동록기간중에 90년도 제1학기 장학금을 지급했다.

▲본회의 장학법인인 재단법인 冠岳會는 지난 2월13일 오전10시 동창회관3층 회장실에서 수여식을 가졌다.

崔主鎬회장, 李聖秀상임부회장, 吳寅泳사무처장과 장학생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이날 수여식에서 崔회장은 장학생들에게 『여러분은 모교에 입학한 것만으로도 인간으로서 성공한 것이며 명예』라고 치하한 후 『그러나 아무리 우수한 사람이라도 1백% 완벽한 사람은 없다』면서 남의 결점을 용서할줄 아는관용의 태도를 배우라고 강조했다.

崔회장은 이어 『이 장학금은 선배들이 후배를 길러보겠다는 뜻에서 정성을 모은 것이니 열심히 공부해서 國家와 民族을 위해 기둥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은 인문대 영어영문학과의 맹경환외 29명이며 이들에게는 등록금 전액씩 총1천5백9만4천원이 지급되었다.

▲法大同窓會(회장 金性洙)는 지난달 15일오후2시 모교 法大에서장학금수여식을 가졌다. 李相赫동창회부회장겸 駱山장학회이사(변호사), 李壽成모교학장, 安京煥학생담당학장보 그리고 장학생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이날 수여식에서 李相赫부회장은金性洙회장을 대신해 장학생들에게 『보다 열심히정진해 장차 국가와 모교를 빛낼수 있는 사람이 될것』을 당부했다.

장학금은 47명에게 등록금 전액씩 총 2천2백9만원이 지급되었다.

▲師大同窓會(회장 朴智洙)는 지난 2월22일 師大 15개 학과에서 성적우수자 각 1명씩을 선정, 15명에게 등록금 전액씩 총 4백63만원을 지급했다.

▲商大同窓會(회장 張禮準)는 지난달 14일오전 국제화재보험빌딩12층 회의실에서 장학금수여식을 가졌다. 李珌奭명예회장, 張禮準회장등 동창회 간부들이 모두 참석한이날 수여식에서 경영학과 5명, 경제학과 4명, 국제경제학과 2명등 11명에게는 각각 47만원씩 총5백17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고 졸업생에 대해서는 학과성적과 졸업논문이 가장 우수한 학생 각과 2명씩 총6명에게 상패와 10만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했다.

▲齒大同窓會(회장 李春根)는 지난 2월8일 모교 학장실에서 각학년 1명씩을 선발해 등록금 전액 총1백7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大學院同窓會(회장 金道昶)는 지난 23일 모교 대학원장실에서 장학금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장학금은 사회과학대 외교학과의 김현철군과 공과대학 토목공학과의 최영철군등 2명에게 학기당 75만원씩 총3백만원이 수여됐다.

▲行政大學院同窓會(회장 兪尙根)는 지난 2월13일 오전 모교 교수회관에서 동창회장, 趙錫俊행정대학원장 그리고교수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이원후군등 5명에게 총2백51만8천원이 전달됐다.

▲環境大學院同窓會(회장 金秉麟)는 2월28일 대학원 교수회의실에서동창회장과 金安濟대학원장 및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장학금은 성적우수자 이민호(환경계획·2)군등 5명에게 총1백55만원이 지급됐는데 환경대학원동창회는 매년 연인원 10명에게 총 3백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이사회에서 동창회는 앞으로 모교에 대한 장학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의하고 우선 장학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 崔主鎬회장 喜壽宴

### 각계 人士 3백여명 참석

本會 崔主鎬회장(39년 農大卒·宇成그룹회장)의 喜壽宴이 지난 2월16일 오후 6시부터 리베라호텔 백제홀에서 동창회 임원, 가족및 친지등 약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베풀어졌다.

金東鍵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喜壽宴은 崔회장의 약력소개에 이어 내빈을 대표한 모교 趙完圭총장의 축사, 기념품및 화환증정, 崔회장인사, 축하케익절단, 만찬및 여흥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동창회를 대표하여 李聖秀상임부회장은 동창회마크를 陽刻한 순금메달을 기념품으로 증정했다.

특히 이날 喜壽宴에는 李載灐·蔡汶植전국회의장, 閔復基전대법원장, 陳懿鍾전국무총리를 비롯하여 申泰煥·尹天柱·權彝赫·朴泰植전모교총장, 李洪九통일원장관, 宋漢虎차관, 국회의원으로는 朴俊炳·鄭宗澤·咸鍾漢·申喆均·李鍾贊·沈明輔·徐廷和·李漢東·朴熺太·吳坦·金德龍동문등이 참석했다. 또 崔錫采전문화방송회장, 金濬植국토통일고문회의의장, 崔侊洙전외무부장관, 金英錫조흥은행장, 李寶衡전주택은행장이 참석했고 재계에서는 李珌奭국제화재보험회장, 鄭泰守한보그룹회장, 段泗川한국제지회장, 宋仁相능률협회회장, 黃寅性아시아나항공회장, 趙鼎九삼부토건총회장, 趙乃璧라이프그룹회장, 徐成煥태평양화학회장등이 참석, 喜壽를 축하했다.

또 金在淳국회의장과 民自黨최고위원인 金泳三·金鍾泌동문, 鄭周永현대그룹회장등도 화환을 보내 자리를 빛내주었다.

## 醫大 親善바둑대회 개최

### 우승 24회·준우승 33회

醫大同窓會(회장 姜信浩)는 지난 2월4일 모교 구본관1층 연수실에서 동문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친선바둑대회를 개최했다.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열린 이날 대회는 리그전조로 나누어 갑, 을 형태로 진행됐는데 우승은 24회 동기회가, 준우승은 33회 동기회가 차지했다.

## 新聞學科定總

### 올 事業計劃 확정

▲新聞學科同窓會(회장 김태웅)는 지난 2월16일 한국일보사 13층 松峴클럽에서 제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진행된 총회는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현총무이사의 사회로 89년도 결산및 90년도 사업보고를 한후 회칙과 회비징수방안의 개선에 관해 토의했다. 신문학과동창회는 이날 총회에서 『회원 1/4참석시 총회성립』이라는 회칙조항을 삭제하여 앞으로 보다 원활한 동창회활동을 다짐했다.

서울大學校의 뿌리 ㉑

— 韓基彦 〈49년 師大卒·母校교수〉

# 法科大學

## 旧韓末 法官養成所가 모체
## 同門힘모아 단독建物 마련

법과대학의 뿌리는 가까이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와 경성법학전문학교에서 찾아보게된다. 즉 오늘날의 「法大」는 이 두 기관이 통합되어서 국립서울대학교의 한 단과대학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두 기관중 「京城法學專門學校」의 경우는 그 연유하는 바가 「法官養成所」에 있으니 실로 「법과대학」의 역사는 1895년부터 시작된 것이라 하겠다.

이 「법관양성소」는 오늘날의 大法院에 해당되는 관청인 「平理院」안에 창설된 것인데 그 위치는 鍾로네거리, 옛 新新百貨店이 있던 자리 뒤편이다. 지금은 백화점 대신에 은행건물이 서있다.

그런데 이 「법관양성소」는 6개월간의 속성과정으로 교육내용은 민법을 비롯하여 형법, 소송법, 明律, 大典會通, 無寃錄등의 大要 및 민·형사의 소송서류의 형식이 가르쳐졌다. 다만 이 양성소는 창설된지 1년만에 한때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다시 1903년에 이르러 再開所되었는데 이때부터는 수업년한이 1년6개월로 연장되었다. 그리고 교육내용은 佛國律例 佛蘭西語, 現行律, 明律, 大典會通 및 無寃錄등으로 되어있었다. 또한 1904년12월에는 수업년한이 2년이 되고 학과목도 변경되었다. 이어서 1907년에는 다시금 수업년한이 연장되어 3개년이 되었고 1년간의 豫科를 두었다.

그후 1909년(11월1일)에는 당시 官制가 개편됨에 따라 「법관양성소」도 종래 法部 소관이었던 것이 學部 소관이 되는것과 동시에 「法學校」라고 명칭을 고치게 되었다. 그후 경술국치의 결과 1910년 8월에는 조선총독부 소관이 되었고 그해 10월 조선총독부 발포에 의하여 명칭이 「京城專修學校」로 바뀌었다. 그후 1916년(4월1일), 조선총독부 學校官制의 발포와 경성전수학교 규정의 改廢에 따라 교육내용면에 있어서도 전수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던중 1922년(4월1일) 학교 명칭이 「京城法學專門學校」로 바뀌게되었다. 이것은 조선교육령개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경성법학전문학교의 규정제정에 따른 것인데 법학전공인 전문교육기관으로서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제말기인 1944년 중반에 이르러 「경성법학전문학교」는 폐교되었다. 이것은 당시 제2차대전의 戰局이 심각해지자 문과계통 학교를 폐교시킨다는 일제의 문교정책에 의한 것이었다. 그결과 경성법학전문학교의 校舍는 理科敎員의 양성소로 사용되기도 하고 일본군 주둔소로 사용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경성법학전문학교」가 再開校하게 된 것은 을유광복 직후인 1945년11월의 일이다.

이상의 일들로 볼때 경성대학 법문학부 법학과와 통합하여 「法科大學」이된 法大의 기원은 1895년에 세워진 「法官養成所」임을 알수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法大는 公法學科와 私法學科 두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른바 천하의 수재들이 입학하는 단과대학중 하나로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건물은 동창생들의 적극적인 모금 결과, 관악캠퍼스 기존 건물과는 별도로 법학전문도서관과 아울러 새건물을 마련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여기에 있어 우리는 오늘날의 法科大學의 定礎와 學風 조성에 크게 이바지한 세분 교수에 대하여 언급함이 좋을것 같다.

첫째는 초대학장이었던 憲南 高秉國선생에 관해서이다.

憲南 高秉國(1909~1976, 또하나의 雅號는 雲梯)은 해방직후 法專을 재건하여 京城法學專門學校 교장으로 있다가 통합후서울대학교 法科大學 초대학장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후에 다시 제3대 학장으로서 그의 경륜을 펼수가 있었다.

崔鍾庫박사(法大교수)는 그가 쓴 「韓國의 法學者」(1989)에서 憲南이 해방당시 수행한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1945년 8월15일 해방이 되자 같은해10월에 경성법학전문학교 교장에 취임하여 38세의 젊은 법학자로서 일제말기에 폐교되었던 이 학교를 복교하여 끌고 나갔다. 1946년 8월에 국립서울대학교가 설립되자 경성법전을 흡수하여 법과대학 초대학장으로 취임하였다. 당시 혜남의 나이는 불과 38~9세밖에 되지 아니하였지만 한국의 법학교수로서는 넘버원 같은 존재였다(150)』고 표현하고 있다.

◇東崇洞시절 法大 건물

여기에 있어 혜남의 제자인 金致善박사(전 法大학장)는 혜남의 학자적 양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술회한 바 있다. 이것은 그후 法大의 學風에 지대한 영향을 준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해방이후 우리 한국사회에는 많은 法律書籍이 출간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적은 日本이나 미국의 서적을 번역해서 내놓은 것들이었다. 學者로서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자기의 학문을 통한 지식을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한 著述을 선생님은 끝까지 謙讓之德으로 사양하신 것이다. 비록 선생님께서는 우리 後學들에게 친히 論文이나 著述을 남겨주시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술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학자로서의 겸손한 자세, 신중한 태도를 본보여 주셨던 것이다.(同窓會報 제54호)』라고 말하고 있다.

또 이제는 고인이된 申相楚교수(경희대)는 改憲商人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예언이 들어 맞았음을 회고하면서 혜남이 實名행동을 금기시했음을 일러주고 있다. 즉 『이 판국에 헌법을 안다고 매스컴을 향해 자주 나팔을 불다가는 십중팔구는 집권세력에게 이용당해 어용화를 면치못할 것이다. 헌법학자가 改憲商人이 될 우려가 충분히 있는 사회에 있어서는 침묵이 오히려 망신을 면하게 해주는 방패가 될것이다』라고 했다. 필자는 이 말을 듣고서도 처음에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깊은말을 헤아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후 36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빈번히 개헌이 단행된 「헌정사=개헌사」라는 등식이 성립되었고 관헌법학자로 자처하는 자들가운데 「개헌상인」으로 전락한 자가 적지않다는 사실을 보고 나서는 선견지명의 소유자였음을 새삼 느끼게 됐다.(崔鍾庫, 상게서 159)』는 것이다.

둘째는 雪松 鄭光鉉선생에 관해서이다.

雪松 鄭光鉉(1902~1980)은 혜남의 선배로서 설송이야말로 1960년대까지 한국 법학계를 대표하는 학자였다.

## 徒弟式 교육, 學風으로 이어져
## 法學·法曹界 거목 수없이 배출

그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이국땅 미국에 있으면서도 학문에 대한 정열은 식지 않았으며 책을 늘 가까이 대하였다고 한다.

雪松의 제자에 대한 극진한 사랑과 엄격성은 유명하다. 그야말로 徒弟式教育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그의 제자인 朴秉濠교수(法大)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즉, 『이렇듯무섭게 엄한 선생님은 내가 大學院에 입학하면서 숙명적으로 侍下生活을 하게되었다. 大學院法學科 主任教授이기 때문에 선생님 硏究室을 출입하면서 선생님을 조금씩 도와 드리다보니 나도 모르게 타의에의하여 親族相續法을 전공하게 되었다. 제3학기초에 결혼하고 마음이 조금하여 學位論文을 준비하려는 차에 어느날 선생님과 論題에 관하여 상의하니 「자네는 韓國法制史를 專攻하게」 하시니 청천 벽력같은 명령이었다. 갑자기 전공을 바꿀수 없는 여러 가지 개인사정을 들어 날마다 애원했으나 끝내는 「학문이 중요하지 자네 개인 사정은 알바 아니고 韓國法制史를 전공하지 않으면 學位받을 생각은 하지도 말게」라는 준엄한 최후통첩을 받았다. 할수 없이 1년을 더연기하는 수밖에 없었고 끝내는 최초의 韓國法制史전공의 碩士가 되고 말았으며 선생님은 누구에게나 『朴君은 韓國法制史선공이다』라고 소개하셨다. 제다가대학원을 마치자 바로 서울大學校圖書館의 古文書整理에 참여하게 하시니 갈수록 泰山이었다. 그 당시로서는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모르며 선생님의 學問 學界, 民族文化에 대한 사랑과 설계를 짐작조차 못했던 것이다(同窓會報, 제36호)』라고 말하고 있다.

이 어찌 개인 애기라 하겠는가? 여기에는 분명 雪松의 학문정신이 躍如한 것이고 이 학문정신이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오늘날 法大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다.

세째는 晴軒 金曾漢선생에 관해서이다.

晴軒 金曾漢(1920~1988)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회 전의 글에서도 「서울대학교 최초의 開講者」라는 공적으로 해서 소개한 바 있다.

그는 法大교수 중에서도 가장 일찍이 전임으로 자리 잡았고 마침내 정년퇴임시까지 가장 정력적이고 모범적인 화자교수요, 교수행정가로 마친분이시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의 업적을 기리는 동시에 그의 활경륜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그는 좋은 法官을 양성하기 위해 교양과정 2년, 전문교육 3년의 5년제 법과대학 개편을 주장하였고, 考試와 시보제도의 3단계를 거칠것을 말한바 있었던 것이다.

# 美國·헝가리 大學을 둘러보고

——趙 完 圭〈52년文理大卒·母校總長〉

**趙完圭모교총장은 지난 1월12일부터 27일까지 美國과 헝가리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美國체류중에는 스탠퍼드大와 카네기·멜론大學, MIT大學등을 방문, 컴퓨터시설을 둘러보았으며 이어 뉴욕, 워싱턴, 시카고 지역의 同窓會 모임에도 참석, 모교발전을 위한 海外 동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헝가리 방문중에는 부다페스트工大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이어 칼·마르크스 경제대학을 방문하여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본 글은 趙총장이 이들 대학과 해외의 동창회 활동을 둘러보면서 보고 느낀 소감을 정리한 것이다.**

## MIT大의 컴퓨터 施設에 부러움

이번 여행은 세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그 첫번것은 총장 10여명과 함께 미국내 몇몇 大學을 찾아 컴퓨터 시설이 교육, 연구, 학사행정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일이었고 두번째는 몇몇 지역의 大學同門들을 만나보는 일, 그리고 끝으로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 들러 부다페스트工科大學과 學術交流協定書에 調印하는 일이었다.

筆者는 뒤늦게 출국하게 되어 로스앤젤리스의 UCLA를 들르지 못하였고 그뒤 스탠퍼드大와, 카네기·멜론大學, MIT大學등 3개大學을 訪問하였다.

이 3개大學은 이미 우리에게 잘알려진 名門私立大學이다. 일찍이 50년대초 우리는 한참 6·25動亂을 겪고 있을 때 그 大學들은 컴퓨터 시설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간 근 40년동안 美國뿐 아니라 세계大學에서 가장 앞서가는 컴퓨터 시설을 완비한 大學으로 알려지고 있다.

컴퓨터는 곧 教育의 질을 높이고 研究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며 學事行政, 圖書館運營에 불가결의 시설로 되어버렸다. 오늘날처럼 尖端科學이나 技術情報를 分秒를 다투어 얻어내야 하는 國際間 경쟁이 치열한 때에 學問의 電算化는 곧 그 나라의 장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임을 잘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너무나 영세하고 부실한 우리 大學의 실정을 되돌아보며 그동안 더 벌어진 학문수준의 격차에 실망만 더해주는 旅行이었다고 할것이다. 그大學들이 1년에 소비하는 예산이 서울大學의 10배가 넘으며 學生數까지 대비한다면 20혹은 30배의 자금을 투입하여 教育·研究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뒤 우리처지가 무척 애처롭고 민망하게 여기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쟁해 나갈 것인지 걱정이 되었다. 다만, 그런 名門大學 大學院에 우수한 다수의 韓國人學生들이 있고 그중에 서울大學校출신의 後輩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그곳 대학관계자들로부터 들을 때면 흐뭇한 기분이 들던 것이 사실이다. 이들 後輩들이 학업을 마치고 돌아온 뒤 이어서 그대로 연구가 遂行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책임을 통감할 따름이었다.

총장 일행과 대학방문 일정이 끝난뒤 1월19일부터는 뉴욕, 워싱턴, 시카고지역의 서울大 同門들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뉴욕의 모임에는 그 지역 동창회장인 盧鎔冕(55년醫大卒) 동문등 임원을 중심으로 한 약 60명이 참석하였다. 거의 모두가 故國을 떠난지 2~30년씩된 同門들이었다. 이들은 뉴욕지역의 大學의 教授, 研究所의 責任研究員, 혹은 高級公務員, 또는 醫療人으로 이미 자리를 굳혔거나 각종 事業에 성공한 분들이었다. 한시간 남짓 母校의 근황과 學生들의 동향, 그리고 모교발전 방향과 同門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다. 現職總長이 外地의 同門들을 찾아와 의견을 나누고 激勵하며 母校발전을 위한 寄與에 대해 협의하는 일은 전에 없던 일이라 이들 同門들은 매우 흐뭇하고 충족했던 것으로 보였다.

뉴욕 다음에 워싱턴으로 떠났다. 워싱턴 공항에 그지역 同窓會長인 白楠博士(62년法大卒), 次期會長인 朴仁洙博士(52년文理大卒) 그리고 駐美大使館의 琴承鎬教育官등이 마중나와 있었다. 이날 교외 중국집에서 同門들을 만나게 되었다. 역시 임원중심이긴 했으나 부부 합쳐 약 80명은 모인 것으로 보였다. 이 모임에서도 뉴욕에서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오랫동안 母校를 들려보지 못했던 同窓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 서울大學校 하면 늘 데모의 중심지요 教育이나 研究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만 알고 있던 同門들에게 그와는 반대로 바야흐로 세계속의 대학으로 雄飛할 단계에 있으며 근래에 教授研究與件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서 주야없이 연구실의 등불이 꺼지지 않으며 세계 각국의 名門大學으로부터 학술교류요청이 답지하고 있는 점, 혹은 지난 2년 가장 충실하게 수업이 이루어졌다는 점들을 소개함으로써 이들 同門들의 걱정을 덜게 해줄 수 있었다.

다음날 일요일은 다시 시카고로 향했다. 그곳지역은 의외로 굳은 비가 내릴만큼 포근한 날씨였다. 공항에서는 그 지역동창회장인 裵永燮博士(58년醫大卒), 부회장인 蘇鎭文博士(62년齒大卒, 일리노이齒科大學教授) 그리고 김종범教育院長등의 마중을 받았다. 이곳에서도 그지역 동창회 임원이 중심이된 30여명이 모인 깨끗한 한식집에서 두세시간을 보냈다. 停年退任하신 筆者의 중학교 數學先生이셨고 工科大學數學教授이셨던 鄭鳳洙教授를 그자리에서 뵙게 된것은 의외의 일이었다. 시카고방문이 처음인 필자에 대한 그들의 환영은 매우 극진했다.

지난해 5월 샌프란시스코지역과 로스앤젤리스 지역을 시초로해서 이번의 뉴욕, 워싱턴, 시카고지역의 主要地域을 다니면서 총장으로 할일이 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萬理他域의 同門들에게 一體感을 갖게 하는계기가 될뿐 아니라 이들을 격려하고 모교에 대한 기여기회를 촉발하는 일이라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은 것이다. 우리 동문들은 어디서나 전공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재질을 발휘하고 있어서 이들에게 同門意識을 일깨워 단합하게 한다면 모교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 共産체제에서도 自律性 최대 保障

## 政治·社會개혁의 原動力으로 作用

◇모교 趙完圭총장이 부다페스트 공과대학과의 학술교류 협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시카고에서 2박한뒤 바로 헝가리 수도인 부다페스트 공항에서 기획부실장인 趙東成教授와 合流하여 동행하였다. 부다페스트는 처음 찾는 곳이어서 야릇하고 흥분된 감정을 저버릴수 없었다. 탑승한 항공기는 소련제인 이류신쌍발젯트기인듯 싶었다. 포장, 모양, 요리등이 아직은 뒤처진 機內食으로 점심을 때우면서 부다페스트에 닿았다. 공항에는 부다페스트공과대학국제관계처장과 부장, 그리고 그곳 대사관직원이 영접나와 있었다. 우리 일행을 위해서 소련제 「라다」라는 조그마한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시내로 향하는 차중 마주치는 차들이 거의 모두 「라다」만큼이 작은 것들이고 길옆 건물들은 거의가 그을린 것으로 그슬려 거무죽죽하였다. 그 버스, 전차, 자동차등 각종 共公用車는 三星, 金星의 광고물이 붙어 있어서 우리 기업체의 東歐圈진출노력을 볼수 있었고 든든하고 흐뭇함을 느꼈다.

이튿날(25일) 아침에는 부다페스트工科大學 회의실에서 學術交流協定文書調印式을 가졌다. 우리나라 韓大使가 陪席하였고 工科大學측에서는 총장이 학처장이 모두 참석하였다. 분위기는 마치 外交文書調印하는 자리만큼 엄숙하였다. 포톨총장은 서울대학교와 학술교류를 추진하게된 경위를 설명하였고 양교간의 학술적 유대관계의 증진을 바라는 연설이 있었으며 필자는 서울대학교식구를 대신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후 부다페스트工科大學이 서울大學校와 학술교류를 맺게된 東歐圈내 대학중의 첫번째 대학이며 서로의 학문의 교류를 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토록 하자는 말로 답사하였다. 부다페스트工科大學이 서울大學校와 특별한 관계를 맺게된 것을 그토록 좋아하고 만족하는 것을 보고 한람을 느꼈고 다시한번 서울大學校가 세계속의 大學으로 雄飛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illegible]

이름이 상징하듯이 이 대학은 공산이념을 파하기 위한 학이라고 생각하는것은 당연하다. 필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大學圖書館을 들러보았으나 내 예견과는 달리 이 도서관은 세계대학의 도서관과 같은 분위기요 2천여종에 이르는 세계 학술정기간행물은 경제학관련에서 모은 것으로 도처 조금도 共産國家였던 냄새가 나지 않았다.

[illegible]

## 부다페스트工大와 學術交流협정 調印…서울大 발전에 寄與

[illegible]

焦点 초대석

# 大學門을 나서는 後輩에게

⊙본보는 졸업특집으로 국내 굴지 그룹의 임원으로 재직중인 동문들의 특별기고를 게재하여 이제 막 대학문을 나서는 후배 동문들의 길잡이로 삼고자 한다.……………【編輯者註】⊙

이제 막 進水式을 마치고 망망대해를 향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후배 졸업생 여러분께 선배로서 통상적인 축하보다는 지나온 나의 사회경험에 비추어 몇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50년대 나의 학창시절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다사다난했던 격동기였으며, 그 만큼 나의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때 나를 비롯한 여러분의 선배들은 모든 면에서 빈곤한 가운데 학창시절을 마무리 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사뭇 풍요로운 여건속에 졸업을 하고 사회로의 첫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례해서요즘 젊은이들이 내적으로 그만큼 성장을 했는가 반추해 보면 일말의 회의가 없지않습니다.

## 도전적인 意慾과 推進力 겸비하도록

**成基契**〈62년工大卒·金星産電전무〉

평소 직장에서 젊은 사원들과의 대화나 면담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지만 최근 들어 새로이 사회에 발을 딛는 신입사원들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력이 결여되어 있고, 업무에 임하는데 있어서도 도전적인 의욕과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의 속도가 다분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졸업을 기점으로 재삼 인식해야 할것입니다. 이에 적응키 위해서는 앞서 말한 적극성과 새로운 환경을 극복하려는 도전성의 함양 그 자체가 사회에서 여러분의 성공을 보장하는 관건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하면 성적으로 평가되었던 여러분의 하창생활을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생활로 여하히 주체적으로 변화시켜가야 하는가를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개개인이 모여 그 각자가 最小共倍數的인 목표에 따라 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현대사회는 서로간에 혹은 조직안에 다분히 이질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되도록 다같이 공생할 수 있는 행동적 사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는 TEAM-WORK PLAY라고 부르는데, 이점 또한 명심해야 할 점이라 봅니다. 좋은 TEAM-WORK PLAY를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양과 질서의식 등은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필수 과목입니다.

아무쪼록 세계속의 젊은이로서 원대한 꿈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자기를 啓發해 나가며, 어떠한 환경변화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강인한 내성을 함양하여 적극적인 인생을 개척하는 서울대인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혼란과 격동의 80년대를 마감하고 대망의 90년대를 새롭게 맞이하는 이봄에 뜻깊은 졸업을 맞는 후배여러분에게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졸업과 더불어 직장에 몸을 담아 사회인이 되는 이도 있을 것이고, 학문을 계속하고자 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길을 선택하든 간에 여러분은 더이상 보호와 이해의 대상이 되는 학생이 아니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사회 발전에 一翼을 담당하는 진정한 의미의 成人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21世紀의 주인공으로서 義務 다해야

## 언제 어디서든 母校의 名譽 잊지말길

**金京鎭**〈65년 工大卒·三星종합건설전무〉

여러분의 뒤에는 이미 사회의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선배들이 기대와 격려의 눈길로 여러분을 지켜볼 것이며, 후배 여러분은 冠岳人의 긍지와 자신감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지더라도 자신에게 부과된 일들을 능히 해낼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사람의 완전한 사회인이 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학창시절의 이상과 낭만만을 가지고는 결코 이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시행착오를 겪게 되겠지만 이를 조금이나마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선배들의 경험을 많이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소 일찍 사회에 진출한 인생선배로서 느낀바 몇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유난히도 격동과 변혁이 많았던 20세기를 마감하고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21세기의 주인공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주어졌음을 認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의 실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조직속에 묻혀 적당히 지낼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여러분은 경쟁의 대열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력만 있다고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는 것이 사회입니다. 사회는 구성원 각자가 서로 어울려 움직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가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겸손은 美德에 속합니다. 한걸음 물러서서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자세에서만이 서로의 힘이 지속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주위에 있는 모두가 경쟁자 이지만 또한 동반자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끈기와 인내로써 적절히 조화시켜 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처음으로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은 이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또한 조직의 활력소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도 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요즘의 신입사원들을 지켜보면 솔직히 실망을 금할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초년병으로서의 당연히 가져야 할 정열과 패기가 보이지 않는 분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나약하고 감상적인, 이기적인 태도로는 절대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 남을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선배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는 현상입니다. 정열과 패기가 없는 삶은 젊음이 없는 삶인 즉, 여러분은 부디 젊음을 허비하지 말도록 하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모교의 명예를 잊지말고 그동안 쌓아온 모교의 긍지를 더욱 빛낼 수 있는 후배가 되어주도록 선배로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에 축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

國、中、高、大 16년간의 긴 세월을 책과 시험과 통제속에 갇혀있다가 문득 社會의 문턱에 서게된 후배여러분、우선 致賀를 드립니다.

25년의 社會生活에서 크게 이룬것이 없으며 차라리 회한이 쌓여 다시 살수 있다면 하는 헛된 바람을 갖고 있는 제가 단지 선배라는 위치만으로 여러분께 무엇을 얘기해 드린다는 것이 몹시 주저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후회스러움을 바탕으로 두어가지의 당부를 드림이 새로운 生活을 시작하는 여러분께는 다소라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항상 未來를 보며 현실에 最善다하라

**金東植**〈65년 商大卒·現代종합상사전무〉

첫번째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가 종사하는 분야의 專門人(EXPERT)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즈음 사회의 특징은 모든 분야가 세분되어 가고있는 반면 專門性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항상 그부문에 대하여 연구하고나름대로 체계를 세우고 改善또는 創造하는 노력이 없으면 곧 그 부문에서 뒤로처지는 불행을 맞기가 쉽습니다.

社會出發에 가급적이면 자기 性格이나 環境、專攻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나아갈 분야를 정하고 일단 그 조직의 일원이 되면 전문가로서 위치를 세워 유지하여 나아가는 끊임없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두번째는 社會를 사는 기본태도의 重要性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組織은 어디나 上下左右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있는 一個人이 어떻게 처신해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그의 장래를 위해 무척 중요할 것입니다. 조직속의 一員의 행동강령은 理解와 和合입니다. 적은 손해에 크게 불만스러워 한다든지、적은 利害에 조직을 이탈하거나 하는 행위등은 社會生活을 퇴보시키는 지름길입니다. 현재에 자기가 처해있는 현실이나 상황이 一生을 가리라는 假說은 착각이며 장래는 어떻게든 변화하며 이 변화를 가장 적절히 맞기위하여는 자신을 조절할수 있는 현명한 忍耐가 절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의 것들 말고도 수없이 많은 金科玉條적인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저로서는 위의 두가지 만이라도 마음에 간직하고 社會를 살아간다면 보람과 成就가 있는 존경받는 삶을 살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항상 미래를 보며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들은 어느덧 자기가 처한 分野、社會에서 선도적 위치에 도달해 있음을 알 것입니다.

다시한번 여러분의 卒業을 축하하며 넓은 이사회에로의 진출을 환영합니다. 25년 남짓의 먼 先後輩 관계지만 어느날 인연이 닿아、따뜻이 대포잔이라도 기울이며 더 많은 얘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祈願합니다.

# 淡水魚연구 獨步的 존재

## 共匪 출몰지역서도 채집活動

## 學問하는 기쁨 더 누리고싶어

師弟対談

스승 崔基哲
〈31年 京城師範卒 母校 명예교수〉

제자 朱日永
〈49年 師大卒 中央大교수〉

朱日永：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자주 찾아 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얼마전「한국의 민물고기」라는 책을 새로 발간하셨던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년퇴임하신후에도 오늘날까지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계셔서 저희후학들에게는 훌륭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랜세월동안 우리나라의 淡水魚에 관한 연구뿐아니라 生物學분야에 대해서도 지대한 공헌을 해오신 것에 관해서입니다.

崔基哲：글쎄, 난 특별히 내세울 만큼 해놓은 일도 없는데… 그럼 오래간만에 朱박사와 함께 옛이야기나 나눠보지. 내가 처음서울대학교에 부임한게 48년이니까 朱박사와는 1년 남짓한 기간동안만 함께 지냈던것 같애.

朱：예 그렇습니다. 제가 49년에 졸업했으니까요. 그때는 서울대학교가 재편성되면서 생물과로는 제가 제1회 졸업생이 되지만 전체로는 제3회 졸업생이 되는 셈입니다.

崔：그때만해도 서울대학교의 모양새가 영성했었지. 國大案반대투쟁이 서서히가라앉고 이제 막 궤도에 오르려고 하던 때였으니까.

朱：그랬었지요. 제가 재학시절 선생님을 처음 뵐때 소개받기를 충주사범학교의 교장으로 계신분이 새로 오신다고 해서 굉장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때저희 생각으로는 校長선생님과 教授의 사회적 위치를 비교해볼때 교장선생님이 훨씬 위로 보였었거든요. 다시말해서 여러가지 不利를 감수하시고 대학으로오셔서 저희를 지도해주시기로 하는데까지는각별한 동기가 있었을것으로 생각된거지요.

崔：나는 日帝때부터 살아온 사람으로 감히 대학교수가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평소에 친분이 있던서울대 교수님 세분이트럭을 가지고 내려오셔서『서울대로 가는 거다』라며 내책을 트럭에 싣기 시작하는 거였어.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했지만 아무런 마음의 여유도 없이 부임하게 되었지.

朱：그때 서울대는사택문제등 선생님을 맞아들일 여건이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연구실이래야 일제때 수집해서 남은 표본들을 보관한것과 선생님께서 가져오신 귀중한 문헌들이 총재산이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실험실에는 기구도 없었을 뿐더러 전기나 수도시설도 갖춰지지않은 상황이었지요. 이토록 어렵게 강단생활을 시작하셔서 선생님의감회가 더 깊으실줄 압니다.

崔：물론이지. 그밖에도 그해에 일어난 일중에 생각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냐. 朱박사도 잘 기억하고 있겠지만 속리산에 갔던일 생각나지요.

朱：예. 그때 속리산에는 공비가 출몰하던 때였지요. 무장한 전투경찰들의 호위를 받으며 답사겸 채집활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아니면 있을수도 없는 일이었지요.

崔：아까도 朱박사가 얘기했지만 생물과 1회 졸업생이 전체로는 3회, 사대로는 2회졸업생이 되는 셈이지. 그리고 생물과 첫해학생수가 네명뿐이어서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 朱박사를 비롯해서 지금 모교에 있는 李雄稙교수, 서강대의 吳桂七교수 그리고 여학생이 한명 있었는데 중도에 탈락했던것 같애. 워낙 수가 적다보니서로 한가족이나 다름없이 지냈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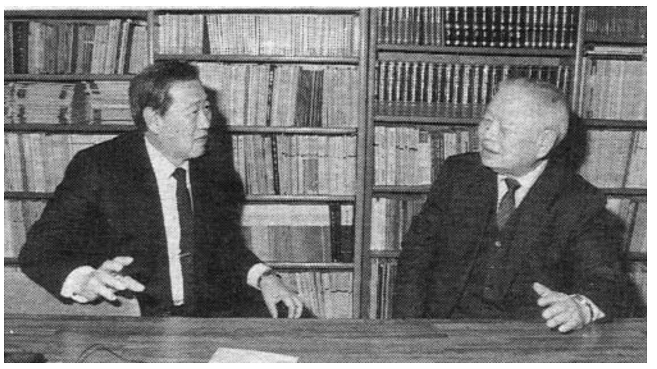
朱：그랬었지요. 그리고 선생님 전에 새벽어시장에 나가서 채집하신적이 있으시지요. 저도 모시고 나간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때 선생님들께서 저희들교육하는데에 정말 열정적이셨어요.

崔：그당시 교수들사이에 서울대생들이 졸업하면서 논문하나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치욕스런 일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일찍이 졸업논문제를 도입했었지. 그결과 朱박사가「잉어과 어류의 인두치에관한 연구」라는 독특한 연구논문을 내놓았었지. 아직도 그 논문집이우리집에 보관되어 있다네. 그때 朱박사의 성격이 차분하고 해서앞으로 학자로서 대성할 것이라는 짐작을 했었지.

그리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는데 우리 캠퍼스가 을지로에 있었을 때의일이야. 우리끼리는 빨간벽돌집으로 통했던 곳이지. 그때 생물학과학생들 사이에「유글레나(Euglena)」라는 연구모임이 만들어졌다는 기쁜소식을 접하게 되었어. 유글레나란 동물인 반면 엽록소를 갖고 광합성작용도 해 식물로도 분류되는 것으로 우리말로 하자면연두벌레라고나 할까. 어쨌든 식물·동물학을 불문한 많은 학생들이 한데 모여 채집도 같이 다니고, 책도 나눠 읽으며 뭔가 이루어보려는 노력이 가득했었어. 지금도 그중에 기억나는 이가 李澤俊중앙대교수, 朴奉奎이화여대교수등으로 이제는 모두 저명한 학자로서 명성을 날리고 있어 큰보람을 느끼네.

朱：그후로 제가 지금도 잊을수 없는 일이 6·25가 발발할때의 기억입니다. 선생님께서는 6·25직전 남쪽으로 채집을 떠나셔서 그때는 댁에 계시지 않으셨지요. 통신이 두절되고 생사불명인 상태에서 慈堂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崔：그때 난 전라남도 흑산도에 있었지. 홍도에 채집 갔다가 돌아와보니 6·25가 터졌다는거야. 그래서 목포로 옮겨 전남당국의 협의로 전남대의과대학의 임시생물교사양성소에서 강의를 하다 다시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어.



◇옛시절을 회상하며 정담을 나누는 스승 崔基哲(우측) 박사와 제자 朱日永교수

朱：그래서 부산에 머무르시다 9·28수복때 서울로 올라오셨지요.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1·4후퇴로 다시 피난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전시연합대학을 운영하셨지요.

崔：부산 피난시절 전시연합대학을 열고 생물학과에 적을 둔 학생들을 모아 강의를 시작했었지. 말이 대학이지 천막교실이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었어. 하지만 생물학을 전공한 학생들에게 변변한 실험 한번 시키지 못하고 졸업시킬수가 없어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했었는데 먼저 부산이라는 지역환경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과 판자집일지라도 실험실을 어렵게 마련했었지. 하지만 그때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아직도 미안한 생각이 남아있어.

朱：저는 조금 늦게 부산에 내려가서 선생님과 재회하게 되었지요. 그리고는 선생님께서 경남고등학교에 자리를 알선해주셔서 다른 사람보다 좀더 빨리 안정을 찾을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난76년 정년퇴임하신 후에도 여전히 모교 명예교수로서 대학원 강의를 맡고 계실뿐아니라 私費를 들여 설립하신「한국담수어연구소」의 일도 맡아 보고 계십니다. 특히 한국담수어연구소에 소장된 표본은 南韓내의 민물고기는 거의 빠짐없이 보존하고 있어 國寶에 해당할만큼 귀중한 자료입니다. 비록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 학문적 가치는 헤아릴수가 없을 정도이지요.

## "退任後에도 끊임없는 研究생활, 後學들에 커다란 귀감"

崔：30년전부터 계속 수집해온 것인데 이제는 더 많은 분들에게도움을 주기 위해 국립과학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지. 이렇게 결정하고 나니 더할수 없이 기쁜 마음뿐이야.

朱：선생님께서는 또 전국 방방곡곡에 발길이 안닿는 곳이 없으셔서 각도의 담수어에 관한 책자도 많이 발표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년후 15년동안이나 계속해서 연구업적을 쌓으신걸 보면 대단한 노익장이신데 특별한 건강비결이라도 있으십니까?

崔：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에게는 리듬이 있기 마련이야. 나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세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인간에게는 인간성을 계발하고 그 틀을 형성시켜주는 가정이 필요하고 둘째, 자기의 능력을 힘껏 발휘하여 理想을 펼칠수 있는 직장, 그리고 세째는 自然속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왔지. 그래서 아침 5시에 일어나고 저녁 10시에 취침하는 습관을 지난 60여년동안 실행해왔더니 이렇게 건강한가봐.

朱：오래도록 건강하셔야지요. 선생님께서 앞으로 해주실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崔：그렇지 않아도 언젠가 朱박사와 학문에 관한 의논을 하고 싶었는데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지. 아직은 내가 정리할 일도 남아 있고 해서 저세상에 가는 것을 연기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작업을 해나갈 생각이야.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후배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학문하는 기쁨을 더 누리고 싶은 욕심때문이야.

朱：오늘 귀한 말씀 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도 더욱 노력해 선생님의 가르침에 보답하겠습니다.

名譽教授 칼럼

# 藝術음악과 타락된 音樂

張 師 勛
〈前 母校音大교수〉

1982년 停年退任 기념문집 「花前態와 花柳態」 출판 기념 파티 석상에서 본인의 답사

『國樂에 몸을 담은지 51년을 맞이하여 이제 정든 서울大學校를 떠나지만은 國樂界를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자리에서 오래 머무르다가 일할 자리를 옮기게 되었을 뿐입니다. 한평생을 國樂과 더불어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기에 내가 몸을 어디에 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國樂界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번 3월부터 淸州大學校藝術大學 교수로 초빙되어 덤으로 더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에 이고장에도 반드시 國樂科가 新設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집념은 淸州大學校에 부임한지 5년째 되던 해인 1986년에 뜻하지 않게 藝大學長직을 맡게 됨으로써 실현을 보게되었다.

學科 新設은 그리쉬운 일이 아니다. 한학과를 신설하자면 소속 대학 교수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총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문교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중에서 어느하나도 순조롭지 못할 경우에는 불가능한 것이다.

繪畵學科는 4년, 國樂學科는 3년동안 신설코자 하였으나 이 세가지 절차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이와같이 어려운 과 신설이 86년에 다시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서 想起되는 것은 82년 정년퇴임 때 내자신의 의지만으로 공언한 淸州大學校의 國樂學科(13번째)가 신설된 것이다.

1959년 6월 29일자 「大學新聞」에는 『여기 20대의 靑年들이 저마다 거문고를 안고 있다.……그들은 狂舞하는 世紀末的인 「재즈」의 喧擾속에 한떨기 百合과도 같이 淸楚한 民族固有의 精神을 이어나갈 바로 그 사람들인 것이다』 이와같이 激勵하고 美化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당시 國樂敎育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극복하면서 오늘날과 같이 국악교육의 틀을 다지고 성공시킨 것은 오직 지도교수의 사랑과 熱情과 희생적인 使命感에서 이룩된 것이라고 할수 있다.

기성 국악인의 舊殼에서 벗어나 이론적 탕위에서 實技를 익히게 한다음 학문적인 이론과 녹창적인 작품을 개발하는 값진 意義를 이르다.

이와같이 國樂을 화문으로서 품위있는 예술로서 이끌어 올려왔건을 최근에 이르러 民衆을 파는 일부 계층에 의하여 국악을 격하시키고 도구화하고 있음은 개탄하지 않을수 없다.

民主化 바람에 정치가 어지러워지고 경제가 영망이고 윤리와도 덕이 땅에 떨어져가고 있는 이러한 혼탁한 사회에서 하필이면 國樂이 여기에 휩쓸려 가는 것이 더욱 안타깝다.

예전에는 손끝에 기술을 가진 사람은 쟁이·장이(匠)·젬이, 힘을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은 군이라고 하였다.

피리 젭이, 해금 젭이, 머쟁이, 환쟁이, 기와쟁이, 목덕군 등등이다.

또 단체로 무리져 있던 집단은 패(牌)라고 하였다.

예를 들면 사당패, 선소리패, 굿중패, 걸립패 등이 그것이다.

또 마당이나 판이라는 말은 주로 놀이 성격을 띤 용어로 쓰여왔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대학교수의 위치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도 출판, 출패 등의 용어를 자랑삼아 쓰고 있는 예를 보게된 것이다.

그러다가는 무용가는 춤쟁이, 성악가는 소리패, 화가는 환쟁이로 다시 변신할지도 모를일이다.

이나라를 다스려 보겠다고 나선 대통령후보들이 농악패를 앞세워 소란을 피우고 사회를 정화하겠다고 자처하는 대학생들이 꽹과리와 징·장구를 마구 두드리며 수업을 방해하는 판국이다. 그러나 예술음악과 놀이음악, 품위있는 음악과 타락된 음악은 분명히 구분해야 할것이다. 멀지 않아 지방자치제 의원선거가 있을터인데 또 농악패를 동원하여 온 나라를 시끄럽게 소란을피우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 얼굴論

同門수필

나는 가끔 생각해본다. 다른 동물들은 모두 두 땅바닥을 내려다보고 걷게 만들었으나 인간은 유독 이마를 세우고 걷게 만든 까닭이 무엇일까 하고…. 아마 그것은 조물주가 사색하는 머리와 얼굴을 대우해 주느라고 그랬는지 모른다.

또 이상한 것은 그 많은 얼굴들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똑같은 귀 둘에, 눈 둘에, 코 하나가 있어도 형형색색이다.

의대 재학시절 해부실습 때, 무개골의 매끈한 표면을 만지면서 나는 나도 모르게 옛날이 분의 얼굴과표정과 인격은 어떠했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곤 하였다.

딱딱한 뼈 위에 근육이 잘 붙었느냐, 또 그 곡선이 어떠냐에따라 미인이다, 추남이다 하며 사람들은 거의얼굴에다 점수를 주고있다.

요사이는 남자에게도 맞춤스럽게 「파마」와 「커트」뿐만아니라 화장이란 것이 생겼지만 역시화장은 여자의 전유물로서 얼굴의 교양미나 예술성을 깎기도 하고 높이기도 한다.

얼굴은 이력서이다. 화장을 아무리 해도 이는 못 속인다. 얼굴이라는 신분증명서를보고 판상장이가 그럴듯하게 큰 소리 치는지도 모른다. 의사들도환자들의 얼굴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병을 진단한다.

사람들은 아침마다세수 후 거울을 보며주름이 늘었나, 얼굴의어디에 변화가 생겼나를 본다. 결국 인생은 자화상의 완성과정이지않은가?

살아온 얼굴의 역사속에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 형성된다.

진실과 헌신 속에 살아온 사람의 얼굴은무언지 모르게 秀麗한 반면, 위선과 포악 속에서 살다간 사람의 얼굴은 지저분한 자화상이 될 것이다.

『나이 40이면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링컨이 말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선언인가! 우리는 잠자는 아기의 티없는 얼굴에서 평화와 고요 속의 無垢를 본다. 그 깨끗한 얼굴에 뜨뜻미지근한 수염



朴 聖 泰
〈64年 醫大卒·새서울醫院長·국제펜클럽회원〉

난 얼굴을 갖다 대려면 무언지 죄어드는마음을 느낀다.

인간의 얼굴은 겉의 간판보다는 그 배후에 있는 마음에 의하여형의 틀이 잡힌다. 아름다운 얼굴이 추천장이라면, 아름다운 마음은 신용장 쯤 된다.

악성 베토벤의 얼굴은 운명에살다간 깊은 주름이있다.

누군가 『사람의 뒷모습은 언제나 슬픈 생각을 준다』고 늙어진 어깨와 주름진 목덜미…. 비극적이다. 그려나 얼굴을 정면에서 보면많은 신비를 간직한듯한 얼굴과 배신의 칼날을 품은 눈동자라든지 도전하고 싶은 유혹을 일으킨다. 뒷모습에는 과거가 있고 정면에는현재가 있다』고 하였다.

우리의 얼굴이 비극적이든 도전적이든 간에 어버이한테서 받은 유일한 선물임에는 틀림없다. 귀한 신물을 끝까지 간직하려면 마음의 지표인 얼굴을 잘 가꾸어 나가야겠다. 『선한 노한 얼굴은 악한 한 벗의 옷는 얼굴보다 낫다』고 하였다.

진실된 마음과 맑은혼이 수반되지 않은 얼굴이란 마치 하나의 가면과 같다.

따지고 보면 우리들의 일상은 수 많은사람들의 얼굴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진다. 세상은 얼굴 시장이요, 백화점이다.

귀대하는 아들을 배웅하는 어머니의 얼굴, 양초인형같이 일그러진 어느 살인수의 얼굴, 숨막히는 전쟁터의 참호속에서 잠깐 꺼내본 사진속의 미소짓는 아내의 얼굴들등…….

나는 가끔 버릇처럼 지난 여름 남해안 돌섬에서 수집했던 돌들을 꺼내 본다. 멋대로 생긴 돌하나하나의 얼굴을 보면 오랜 풍우에 시달려 온 특유한 내력을 읽을수 있다.

산에는 산의 얼굴이, 나라에는 나라의 얼굴이 있다. 그러나 인간들은 아름다운 자연의 얼굴을 공해와 쓰레기로 너무나 더럽히고 있다.

우리 인간들은 보다 겸허하며 진실된 무변의 우주라는 큰얼굴에 비하면 인간이란 하나의 점이랄까. 그럽자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 않는가.

# 모임探訪

## 서울會

# 藥大출신 골프同好人 모임

## 全國大學 단체전서 3회 우승

「서울會」는 모교 藥學大學을 졸업한 동문들중 골프同好人들로구성된 스포츠모임이다.

요즘처럼 제각기 바쁜 일과에 쫓기다 보면 취미생활을 한다는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뿐만 아니라 게으름으로 적절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지만 서울會에서는 골프경기를 통해 친목을 다지는 한편 체력증진에도 힘써 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同會는 지난 80년 許溶(삼일제약 대표이사)초대회장을 정점으로 해서 尹相澈(수정약국 대표·同會副會長)、禹東一(半島製藥 대표이사·약대동창회장)、梁承龍(한스제약 대표이사)、李金器(일동제약 대표이사)、李永浩(종근당 부사장)、鄭東源(진양제약 회장)、閔範植(우천약품 회장)、朴晶植(동경약국 대표)동문등 15명의 회원으로 출범하였다.

◇許 溶 회장

◇朴晶植 총무

서울會는 순수한 골프모임으로 매월 한번씩 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이는 정례모임을 갖고 친선도모를 위한 골프에 나선다. 이 모임의 연륜도 짧지 않아 지난 2월로 제89회경기를 가졌으며 이러한 同會의 발전상에 비례하여 회원들의 수도꾸준히 늘어나 현재는 80여명에 달한다.

특히 同會에 대해 많은 동문들이 애착을 갖게된 이유는 同窓들을 만나 그립던 옛 화창 시절로 돌아가 푸른초원에서 한바탕 웃을수 있는 즐거움이 있기때문이다. 그럼으로써 公私로 바빴던 일상의스트레스를 풀고 경기후에 갖는 간담회를 통해 유익한 사업정보도 얻을수 있어 호평을받고 있다.

또한 매경기후에는13개에 걸친 각종 상을 마련하여 시상을 하게 되는데 프로급수준의싱글회원이 상당수 있어 경기결과의 향방을 점칠수가 없을 정도라고。

이러한 회원들의 실력을 증명하듯이 保健新聞社 주최로 매년봄 열리는 「전국약학대학대항 단체골프경기」에서 3회 우승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편 同會에서는 「골프를 통한 친선도모및 건강증진」이라는 목적 이외에도 미력이나마 同窓會 발전에 기여하고자 힘쓰고 있다. 회원들의 대부분이 藥大각 기별동창회를 선도하고 있어 다양한 의견개진을 통해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지원한다는 것.

그래서 매년 10월에열리는 약대 「동창의 날」행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창립당시부터 총무직을 맡고 있는 朴晶植 동문은 『맑은 공기를마시며 필드를 걸을때면 온갖 시름을 잊을수있을뿐아니라 선후배간의 친밀감도 더욱 높일수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골프장 부킹 때문에 매월 차질없이장소를 물색하여 모임을 갖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同會에서는 경기간사(金榮吉 동문 제일약품 전무이사)와 부경기간사(趙來珪동문 제중당약국대표)를 두어 진행에빈틈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林順泰(삼천당제약 사장)、金元實(평안약국 대표)、金相祚(한국그락소 사장)、金鎭烈(안진제약대표이사)、柳永植(동신제약 회장)、李漢培(景都化學工業 대표이사)、崔允煥(진양제약사장)、全裕學(우천약품사장)、黃俊秀(서울제약 대표이사)、朴萬基(모교약대교수)、崔賢植(중외제약 전무)동문등이 합심하여 상부상조하는데 앞장서고있다.

서울會에서는 앞으로 가족을 동반한 각종모임도 가질 예정이며회원들의 중의를 모아會기금을 마련하여 동창회에 일조하는 한편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회원들에게도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을 가까운 시일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 尙美會

# 齒大동문들 모여 美術활동

## 無料진료등 봉사활동도 展開

현대사회는 오랜 산업화의 결과로 날로專門化와 細分化의 과정으로 치닫고 있다. 기능적인 면에서는 효율의 증대를 기할수 있겠지만 전문성이 극대화되다보면 활동영역이 축소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현대인들은특히 정서적 공복감을느끼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어 보다 세상을 넓게 보고 자신의 영역을 확대할수 있는 계기마련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모교 齒大 졸업생및 재학생들로 구성된 尙美會는 齒醫學에 관한 전문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각자의 다양한체험을 형상화시켜 화폭에 담아 냄으로써 폭넓은 삶을 구현해내고 있어 주위의 화제가되고 있다.

본래 상미회는 재학시절 미술반 서클이었던 尙美村으로부터 유래된다. 상미촌은 지난 76년, 치과의 업무가치및 그밖의 조직의 기능회복에도 중요성이있지만 심미안적 안목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도 그 비중이 크다는 전제아래 李勝雨(모교치대교수)동문을 중심으로 해서 창립되었다.

『平和와 사랑의 정신으로 美를 탐구한다』는 尹奉潤(능곡치과원장)회장의 설명과 같이 尙美會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림을 통한 여가선용으로 재창조를 이루는 한편무료진료라는 봉사활동을 통해 사랑의 정신도실현하고 있다.

OB회원들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무료진료팀이 방문하는곳은 서울시립필동유아원으로근처 남대문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부모들이아이들을 맡겨 놓은탁아소의 성격을 띤 곳이다. 지난 84년부터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방문해 齒醫術을 펴고 있는同會員들의 이같은 봉사활동은 혼탁해진 사회에 따뜻한 입김을 불어넣어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同會의 회원으로는尹奉潤회장을 비롯하여李承健(이승건치과)부회장、全璟敏(전경민치과)재무부장、金星郁(미형치과)총무부장등으로 구성된 임원진이 會의 활성화를 꾀하며 내실을 다지는 한편 회원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다양한 각도의 활동도 계획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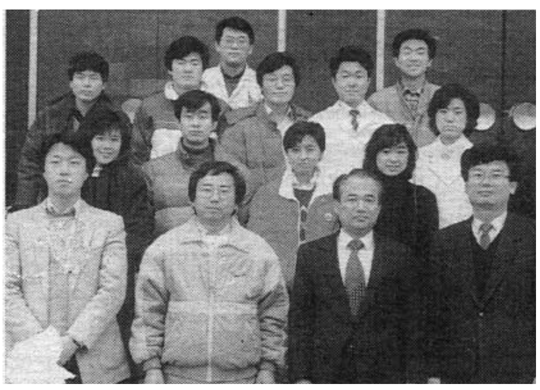
이밖에 朴光植(햇빛치과)、趙大燁(조대엽치과의원)동문이 會의 가교역할을 하는 소식지 발간에 힘쓰고 있으며 鄭弼薰(모교치대교수)、曺基英(군복무중)、鄭承永동문등 20여명의 회원들이 내재된 예술적 감성표현에 여념이 없다. 이러한노력의 결과、몇년전에는 尹奉潤회장이 국제예술가연맹에서 주최한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여 아마추어로서는 화려한 경력을 갖추기도 했다.

이와함께 업선된 16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후배재학생들의 모임(회장 김미라、총무 이상언)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방학기간동안에는 한정된 소재에서 벗어나 새로운 분야의 소재나 재료를 발굴하기 위해 스케치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지난 여름방학에는 제주도로 다녀온후 이번 겨울방학에는 경남 진해 근방의 섬으로 다녀왔다.

尙美會는 또한 정기적인 행사로서 매년1회이상 전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20회에 걸친 전람회를 통해 그동안 쌓아온실력을 선보이기도 했다.

창립당시부터 지도교수로 수고를 아끼지않고 있는 李勝雨교수는 『무엇보다도 그림을통해 美를 추구하는 모임이어선지 선후배 관계가 가족적일뿐 아니라 화기애애하다』며 會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예술행위란 마음에서 우러나야 함으로 억압된 규정을 좋용하기 보다는 자유로움속에서 무한한 창조력을 발휘할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모처럼 자리를 같이한 尙美會 회원들. 앞줄 좌에서 두번째가 尹奉潤회장.

# 人蔘과 山蔘

인삼에 대한 연구논문만도 2천여편이 넘는데 아직도 그 신비의 베일을 벗겨내지 못하고 있는 이 靈草의 정체는 무엇일까?

## 健康교실

柳聖圭 〈59년 師大卒〉 서울漢醫院 院長

## 宇宙의 神秘와 같은 靈草
### 精力강장·酒毒에 效驗 탁월

◇柳동문

공해로 인해 半病人 시대에 살고 있는 인류의 건강을 위해 인삼 특히 山蔘의 기초지식을 터득해 두는 일은 매우 요긴한 일이다.

인삼의 종류는 고려인삼을 비롯 일본의 죽절인삼, 캐나다 미국등지에 자생하는 미국인삼, 中國假人蔘등 10여종이나 된다. 제조과정상 백삼, 홍삼, 수삼, 건삼, 재배년도로 따진 4년근, 5년근, 6년근 재배지역에 따라 개성인삼, 강화인삼, 금산인삼, 풍기인삼, 삼의 제조형태상 직삼, 곡삼, 미삼등으로 불리며 산삼은 50년생, 백년생등 악주 오랜 연륜을 과시하나 재배인삼은 흔히는 5년이상 되면 썩어 버리니 산삼의 효능이 이것만으로도 짐작이 간다.

인삼의 성분은 수분, 灰分, 粗脂肪, 조섬유, 단백질등이라지만 과학적 분석으로는 헤아리기 어려움이 마치 우주의 신비같은 것이다.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결과로 지적된 인삼의 약리작용으로는①血行의 원활②造血作用③强心作用④노화방지⑤혈압조절⑥간기능보완⑦健胃作用⑧당뇨병치료⑨抗癌治癌⑩알칼리성체질 개선⑪냉증치료⑫갱년기장애해소⑬류머티즘치료⑭정력강장⑮두뇌활동촉진⑯明目⑰피부미용⑱毛髮健壯⑲알콜중독해소등으로돼있고 한의학적 약리효과의 기록으로는 主補五臟·安精神·定魂魄·止驚悸·除邪氣·明目開心益智·久服輕身·長壽등 실로 다양한 약효를 과시하여 만병통치의 선약이라 불리울만하다.

한방의서에 기록된다양한 인삼약효의 주장을 일말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치부한 현대의학계에서도 날이갈수록 속속 이를 고증함으로써 인삼의 특출한 약효를 적절히 활용하는 일이야말로 공포의 상징인 성인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더없는 원군이 되고있다.

특히 애주가나 폭주가들의 술로 인한 간장질환에 시달리는 경우 酒毒을 염려하는 이는 술마시고 나서 곧 인삼즙을 복용하거나 분말된 인삼, 인삼 엑기스제 또는 생삼·건삼을 한뿌리정도 씹어먹으면 그 효험이 탁월하다는 것을 기억해두기 바란다. 그러나 인삼이 체질에 맞지않는 경우에는 삼가하여야한다. 인삼 복용후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에 화기가 오르며 상체에 좁쌀처럼 돋고 숨차는 경우등이 인삼이 맞지않는 체질이다.

재배된 인삼의 약효가 이정도이니 산삼의 경우는 불로초라 칭송할 정도의 약효가 있으리라는 것을 유추하기란 힘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산삼은 너무나 희귀하여 그 감별이 매우 어려워 감히 산삼을 구득하여 복용하기 어려운게 현실정이다.

산삼이 나는 곳에서는 紫氣와 광채가 있으며 하늘에는 서광이 비친다는 이야기가 있다.

천년묵은 동자산삼을 먹고 신선이 되었다는 전설은 흔하게 들어왔다.

진시황이 삼신산을 찾아 불로초를 구하게 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하다.

이런 仙藥이요 靈藥인 산삼은 유사품이나 조작품등이 나돌아 어지간한 감식력을 지닌 전문인이 아니면 사기꾼들의 덫에 걸리기 마련이다.

중국의 上黨蔘이 산삼으로 오인된 경우도 있고 산삼씨를 인공으로 재배한 삼이 산삼으로 둔갑되어 시중에 나도는 경우도 허다하다. 미국삼이 산삼 행세를 하기도 한다.

고려산삼은 북위30~45도에 이르는 곳에자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 산악지대,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지리산 일대에서 드물게 발견되고 중국에서는 북동부 지방인 장백산일대, 흑룡강일대, 길림성일대에서 비교적 많이 자생하고 나머지는 소련의 극동연해주에서 자생하는 것으로 이상의 것들이 산삼중에도 영약인 고려산삼에 속하는 것이다.

산삼의 특성은 지질시대의 잔존식물로서독립성이 강하여 다른식물이 번식하지 못하는 어두운 곳에서도 생육한다. 심산 음지에서 자라나는 산삼은 다른식물들은 죽어버리고 말 악조건에서도 필요하면 성장을 중지하고 잠을 자며 내일을 기약하는 영초인 것이다. 산삼은 성장이 대단히 느린내한성 식물이며 번식력이 약하며 희귀식물이 될수밖에 없고 깊이깊이 뿌리내리며 사는장수형 식물이다.

산삼의 특질은 재배인삼과는 달리 싹이튼자리인 뇌두가 가늘고길며 나이대로 매년한개씩 뇌두가 생긴다. 몸체는 가늘고길다. 몸체에는 횡취(가늘게 몸체를 돌고 있는 가락지 모양의 둘레)가 많을수록 좋은 산삼이며 잔뿌리는 딱딱하며 인장강도가 높으며 황금색이다.

그 맛은 달고 쓰고 향기로우며 잔이슬같이 맺힌 옥주(玉珠)가 잔뿌리에 붙어있다.

재배인삼의 경우는 산삼보다 잔뿌리가 훨씬 많다. 재배된 가삼은 뿌리가 약해서 똑똑 끊어지지만 산삼은 잔뿌리가 억세고 질기다.

산삼은 먹으면 취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는 것은 병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런 것은 부작용이 아니라 瞑眩작용이라 한다.

산신의 현몽이 아니고는 찾아낼 수 없다는 산삼, 목욕재계하고 온갖 정성어린 치성을 드린 끝에 현몽따라 찾아내는 이 산삼의 신비한 약효가 과연 현대과학으로 해명될 수 있을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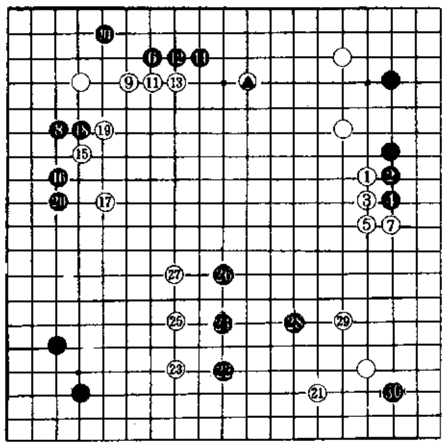
趣味·生活

# 바둑篇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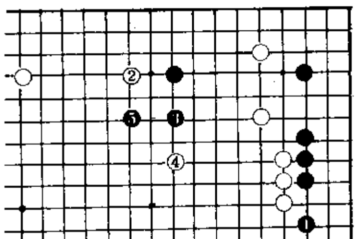
— 朴治文 〈79년 人文大卒·世界日報記者〉

## 最高位戰 〈최종결승국〉

白9段 曺薰鉉
黑4段 李昌鎬
〈黑 반집승〉



## 實戰 하이라이트



〈1도〉

### 소년 李昌鎬의 不可思議

이판은 바둑사에 길이 남을 사제간의 명승부. 15세 소년 李昌鎬 4단이 스승 曺薰鉉 9단을「반집」으로 꺾고 신문棋戰사상 세계최연소기록을 세우며 타이틀을 따낸 最高位戰 최종결승국이다.

曺9단은 黑△ 한점을 겨냥하여 白1부터 고압전술을 편다. 黑6에서 李4단의 소년답지 않은 노련함이 드러난다. 패기넘치는 劉昌赫3단 같으면 당연히 〈1도〉 黑1로 실리를 챙겨놓고 白2의 공격엔 黑5까지 맞받아 싸웠을 것이다.

그러나 李昌鎬는「老棋」란 별명답게 6、8로 변신. 스승의 實利的棋風을 역으로 구사한다. 黑16은 대부분의 高手들이 반대한수. 『大海로 나가라는 바둑의 격언대로 21이나 22로 활달하게 두어야 했다는 것이다. 16、20은 노인처럼 꾀장꾀장하고 스피드가 없다는 것이다.

헌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 黑이 22벌리고 白이 勢力을 배경으로 23뛰어든 것은 당연한 흐름이다. 그리하여 서로 한칸씩 뛰어나갔을 뿐인데 29의 시점에서 보니 黑은 사방이 집인데 白은右下방에 집이 없다. 그 집마저 黑30으로 파버리자 국면은 대번에 黑우세.

白은 잘못된 수가 하나도 없고 黑은 몇수를 지적받았는데 어찌 형세는 黑이 우세한 것일까.

이것이 바둑의 본질과 오랜 상식마저 위협하는 李昌鎬의 불가사의한 힘이다. 이 판은 중반에서 曺9단이 분투하여 형세를 역전시켰지만 계산의 天才李4단은 꾸준히 끝내기에서 추격하여 극적인「반집勝」을 거둔다.

스승과 제자가 다같이 마지막 1분 초읽기에 몰릴 정도로 사력을 다한 명승부였고 名局이었다.

▲李琓奭(35년 商 大卒·國際火災保險會長·冠岳會理事)‖丹菴장학재단이사장으로서 2월 15일 모교 상경계학생 40명에 대한 장학금과 경제연구소의 교수 연구협력금으로 6천만원을 지급。

▲金俊成(42년 商 大卒·주식회사大宇會長·本會顧問)‖최근 全經聯 顧問에 취임。

▲趙炳華(43년 師 大卒·詩人·本會理事)‖3월1일 오후 서울 가든호텔 무궁화홀에서 있은 제31회 3·1文化賞 시상식에서 예술부문상을 수상。

▲李相薰(49년 工 大卒·原子力安全센터 所長)‖원자력법 개정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 원자력안전센터 소장에서 2월9일 개원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초대 원장에 취임。

▲千寬宇(49년 文 埋大卒·史學者)‖古朝鮮史·三韓史硏究」를 펴낸 공로로 2월 15일 제7회 藏菴 학술상을 수상。

▲文仁龜(50년 法 大卒·前大韓辯協會長·本會理事)‖최근 열린 한국법학원 정기총회에서 제9대 원장으로 선임。

▲邊衛尹(51년 商 大卒·韓國經濟學會長)‖2월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우리나라의 토지문제와 정책방향」 등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및 정기총회를 개최。

▲金在淳(52년 商 大卒·國會議長·本會副會長)‖2월 13일 泰國공식방문중 차티차이 추나완 총리로부터 泰國의 최고

▲韓亨健(54년 法 大卒·仁荷大敎授)‖최근 열린 大韓國際法學會 총회에서 새회장으로 선임。

▲趙世衡(56년 文 理大卒·國會議員·本會理事)‖1월 29일 平民黨 정책위의장에 임명됨。

▲柳光烈(56년 師 大卒·成和出版社社長·本會理事)‖1월말일 있은 韓國自由詩人協會 정기총회에서 명예會長에 추대됨。

▲金龍煥(56년 法 大卒·國會議員·本會理事)‖2월13일 民自黨 정책위의장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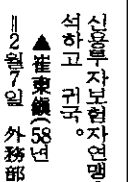
▲金哲洙(56년 法 大卒·母校法大敎授·本報編輯委員)‖최근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피선。

▲崔泳一(56년 獸 醫大卒·기독교방송상무·本會理事)‖지난 1월20일 유성 대온장호텔에서 개최된 전국교회학교연합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

▲申東元(57년 法 大卒·前外務部次官·本會理事)‖지난 2월7일 駐西獨大使에 임명됨。

▲李圭孝(57년 法 大卒·前建設部長官·本會理事)‖최근 개최된 사단법인 한국독립공원협회 이사회에서 제7대 회장으로 선임。

▲許錫九(57년 師 大卒·本會理事)‖1월22일 서울 반도유스호텔에서 열린 農地開良組



▲申尙澈(59년 師 大卒·慶南大敎育大學院長·同窓會馬山支部長)‖최근 수필집 「벽을 허물고」로 제8회 한국수필문학상을 수상。

▲睦榮一(60년 工 大卒·亞洲大敎授)‖2월14~17일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열린 亞太지역 공학단체연합회 총회및 이사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하고 귀국。

▲朴俊炳(60년 文 理大卒·國會議員·本會理事)‖2월 13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만인을 위한 교육」(EFA) 亞太지역 사전협의회에 참석하고 귀국。

▲辛世浩(60년 師 大卒·韓國教育開發院 長·本會理事)‖최근 임명됨。

▲李丙基(62년 法 大卒·農林水産部次官·本會理事)‖최근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소득중대를 위한 대체작물의 재배기술향상및 판로개척문제등을 네덜란드, 덴마크 양국정부와 협의하고 귀국。

▲崔昌圭(62년 文 理大卒·前母校敎授·本會理事)‖2월8일 東京소재 한국 YMCA 아시아청소년센터에서 열린 2·8독립선언및 재일 한국유학생의날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귀국。

▲金成勳(62년 農 大卒·中央大敎授)‖최근 中蘇經濟科學제협력회의에도 참석。



2대 회장에 피선 金동문은 2월9일부터 3월1일까지 中國 山東·東北지방과 蘇聯沿海州를 방문, 韓·中·蘇경제협력회의에도 참석。

▲林東源(61년 文 理大卒·外交安保硏究院長)‖2월9일 오후2시 하이얏트호텔에서 「주한미군의 장래와 한국의 안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黃弼昊(61년 文 理大卒·東國大敎授)‖최근 수필집 「남자의 눈물, 여자의 웃음」(센터



▲裵茂基(62년 商 大卒·母校社會大敎授)‖한국노동연구원장으로서 2월8, 9일 서울롯데 피아호텔에서 열린 美國 英國 日本 獨逸의 노동분야 교수를 초청, 단체교섭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



▲姜敏求(62년 行 政大學院卒·儒城CC社長·本會

## KIST 선임研究員 洪周奉 박사

同門을 찾아서

# 인슐린, 담배서 生成 성공

## 糖尿病치료에 새 轉機 마련

사람의 遺傳子를 고등식물체에 삽입, 그식물로 하여금 인체에 유용한 인슐린을 대량생산토록 하는 최신기술이 同門을 팀장으로한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韓國科學技術硏究院부설 유전공학센터의 洪周奉동문(73년 文理大卒)이 바로 그 주인공.

洪동문은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유전자를 시범적으로 담배에 이식, 담배가 자체적으로 인슐린을 복제生成시켰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토마토에서도 같은 기술을 이용해 인슐린을 생성시켰고 감자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專門家들은 洪동문의 연구성과를 높이 평가한후 『앞으로 연구진전에 따라서는 經口用인슐린의 대량제조도 가능할것 같다』고 예견하면서 당뇨병 치료에 새로운 轉機가 마련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遺傳子의 고등식물체내로의 도입기법에는 토양미생물인 근두암종양균을 사용하는 방법, 미세주사법, 미세투과법 등이 있으나 洪동문은 이번에 근두암종양균을 사용하는 技法을 썼다. 즉 사람의 인슐린유전자를 고등식물 형질전환용 유전자 운반체에 삽입하고 근두암 종양균을 이용하여 담배의 잎절편과 함께 배양했다. 이를통해 인슐린유전자가 담배로 이전되고 이담배잎을 배양한후 토양으로 이식 성장시켜 이 성숙한 담배에서 단백질과 DNA(디옥시리보핵산) 및 RNA(리보핵산)를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단백질중의 약0.5~1%가 인슐린임을 확인했다.

인슐린은 그동안 돼지의 췌장에서 분리, 정제하거나 대장균등 미생물을 이용해 생산해왔으나 이번에 고등식물체를 이용한 인슐린 생산이 가능해짐으로써 인체에 대한 부작용이 적고 效과도 우수한 인슐린을 손쉽게 대량생산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따라 생산비용도 크게 낮출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洪동문은 『이 기술을 이용해 인슐린의 생산수율을 4~20%정도로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動物의 유전자를 식물체에서 발현시키는 고등식물 형질전환기술은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고도의 기술로 지난해 9월 벨기에와 西獨의 공동연구팀이 마취제인 엔케팔린유전자를 레이프시드에 도입하여 엔케팔린을 생성한 것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뒤 美國에서 동물체에 저항력을 부여하는 임뮤노글로불린을 역시 담배잎에서 生成했고 최근 네덜란드 연구팀이 알부민을 생산하는 감자를 개발했다.

洪동문은 『현재 臨床에 사용되고 있는 단백질성 의약품은 약2백50종으로 아직 이들 대부분이 생화학적인 분리과정을 통해 생물체로부터 분리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앞으로 이 기술을 이용할 경우 인슐린뿐만아니라 인터루킨등 항암제와 각종백신등 단백질성 의료활성물질은 모두 생산이 가능할것』이라고 말한다.

洪동문은 덧붙여 이러한 의약물질을 식용작물이나 식물의 열매에 밀집생성하는 기술을 개발하면 먹기만해도 병이 치료되는 「인공약초」의 재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1952년 서울태생인 洪동문은 73년 모교 文理大 植物學科를 졸업, 軍복무를 마치고 77년 美國大學院을 거쳐 83년 美國 미시간州立大에서 이학박사(식물화)학위를 받았다. 이후 텍사스工大, 캘리포니아大에서 研究員으로 근무하다 87년 귀국, 현재 韓國科學技術研究院부설 유전공학센터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귀국하여 첫번째로 시도한 프로젝트가 좋은 結果를 얻게돼 더없이 기쁘다』고 말하는 洪동문은 『서울大同門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

가족으로는 78년 모교音大를 졸업하고 美國 미시간州立大에서 음악학 박사학위를 받은 부인 金春美동문과의 사이에 1男1女를 두고 있다. 金동문은 현재 모교 音大 강사로 재직중.

---

훈장인 白象騎士大綬章을 수훈.

▲尹定燮(53년 工大卒·母校 工大教授) ‖ 2월17일 오후 3시 국토개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대한국토계획학회가 제정한 제4회 현정국토개발상을 수상.

▲裵載湜(53년 法大卒·母校 法大教授·本會理事) ‖ 1월22일 오후6시 프라자호텔 덕수홀에서 후학들이 마련한 회갑기념논문집 「人權과 國際法」을 봉정받음.

▲崔容殷(53년 法大卒·前韓國火藥그룹 고문) ‖ 2월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韓國電[illegible]

合연합회 임시조합장총회에서 새회장으로 피선.

▲明宜植(58년 農大卒·畜協中央會長·本會理事) ‖ 최근 美 테네시州 네시빌市에서 개최된 「국제축산업발전 세미나」에 참가, 한국축산업 실태에 관한 연설을 하고 귀국.

▲琴震鎬(58년 法大卒·國際貿易經營研究院會長) ‖ 최근 사무실을 강남구 청담동76 東西證券빌딩으로 이전.

▲黃昌基(58년 商大卒·韓國輸出入銀行長·本會理事) ‖ 최근 홍콩에서 열린 「90년도 국제[illegible]

[illegible] 월부터는 KBS TV(여성초대석)(매주土 10시10분)의 사회자로도 활약.

▲朴熺太(61년 法大卒·國會議員·本會理事) ‖ 2월13일 民自黨 대변인에 임명됨.

▲梁鼎錫(61년 法大卒) ‖ 2월2일자로 오리콤 부사장에서 社長으로 승진.

▲裵宗奎(61년 商大卒) ‖ 최근 서울地方國稅廳 조사국장에서 大邱地方國稅廳長으로 영전.

▲梁源權(61년 齒大卒·母校 齒大教授) ‖ 국제치과 한국학회[illegible]

제라이온스협회 국제이사로서 최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9차 東南亞라이온스대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귀국.

▲金柱璐(63년 工大卒) ‖ 1월18일 現代重電機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

▲曺基一(63년 文理大卒) ‖ 2월7일자로 駐이탈리아공사에서 駐엘살바도르大使로 영전.

▲金贊鎭(63년 法大卒·東西綜合法律事務所代表) ‖ 최근 모스크바에서 열린 나홋카경제特區설치계획 자문회의에 참석하고 귀로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상공회의소에서 「外資도입과 경제발전」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귀국.

국민학교 유도지원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유도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음.

▲金鍾根(66년 商大卒) ‖ 최근 大宇電子部品 대표이사로 전보.

▲金顯曼(66년 齒大卒·서울市齒科醫師會長·本會理事) ‖ 최근 열린 서울市醫藥人단체장회의에서 새회장으로 선임.

▲安輝濬(67년 文理大卒·母校 人文大教授) ‖ 최근 열린 한국미술사학회 정기총회에서 새회장으로 피선.

---

## 結婚

### 同窓會館 관악홀

△전진수(87년 大學院卒)군·김지영양 ‖ 3월1일 오후1시.
△안병용(88년 人文大卒)군·최미선양 ‖ 3월1일 오후2시30분.
△김승일(85년 人文大卒)군·심정희양 ‖ 3월3일 오후12시30분.
△이우철(89년 自然大卒)군·심남숙양 ‖ 3월4일 오후1시.
△서무송군·김연지(90년 社會大卒)양 ‖ 3월10일 오후2시.
△이정한(85년 人文大卒)군·문은경양 ‖ 3월11일 오후12시30분.
△이재복(86년 師大卒)군·박명신(87년 師大卒)양 ‖ 3월11일 오후2시.
△홍회기(83년 工大卒)군·김유미양 ‖ 3월17일 오후2시30분.
△김규상(86년 師大卒)군·김완선양 ‖ 3월17일 오후2시.
△이봉영군·이희경(88년 美大卒)양 ‖ 3월17일 오후3시30분.
△박기순(84년 農大卒)군·최주영양 ‖ 3월18일 12시.
△이창렬(88년 工大卒)군·송원희양 ‖ 3월18일 오후1시30분.
△윤건영(87년 師大卒)군·하정혜(90년 大學院卒)양 ‖ 3월18일 오후3시.
△유봉인군·정규옥(88년 師大卒)양 ‖ 3월24일 오전11시.
△김종성(84년 工大卒)군·선재정양 ‖ 3월24일 오후12시30분.
△조성억(85년 自然大卒)군·차유미양 ‖ 3월24일 오후2시.
△김진우(90년 社會大卒)군·송명진양 ‖ 3월25일 오전11시30분.
△이경돈(87년 法大卒)군·고현정양 ‖ 3월25일 오후1시.
△지용진(農大 재학중)군·이태옥양 ‖ 3월25일 오후4시.
△김홍규(89년 社會大卒)군·이혜영양 ‖ 3월31일 12시.
△최 욱(85년 社會大卒)군·김현숙양 ‖ 3월31일 오후1시30분.
△박중회(84년 法大卒)군·이선화(87년 社會大卒)양 ‖ 3월31일 오후3시.
△오승룡(85년 法大卒)군·조정옥(87년 師大卒)양 ‖ 3월31일 4시30분.

## 朴東奎의 문화가 산책

# 새 世界질서와 文化향수

동구권의 새로운 체제변혁이 가져온 가시적상황은 이루 말할수 없을 것이다.

동서독을 가로막던 장벽의 허물어짐도 그렇고 소련군인의 동구에서의 철수문제가 그렇다.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올림픽이후 소련권의 예술공연이 잇달아 이땅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볼쇼이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볼쇼이발레단은 3월25일 내한하게 되는데 이 공연은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볼수있었던 소련 발레예술의 전모를 파악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蘇예술의 진수 … 볼쇼이 발레단

이라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최상이라는 예술의 지표를 지니고 3백여명의 무용수를 지니고 있는 소련 최고의 발레단이다.

그 역사도 1776년에 창단되어 재정려시아정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전의 기나긴 길을 걸어왔던 것이다.

더욱이 볼쇼이발레단이 중심무대로 삼고있는 볼쇼이극장에는 오페라단, 합창단, 극단, 관현악단이 있어서 폭넓은 예술의 요람지로 써 장르간의 소통을 이루고 있어서 소련예술의 한 단편을 전형적으로 지니고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내한공연에서보여주는 것은, 백조의 호수다. 지젤등 우리에게는 낯익은 작품들이라 감상의 폭이 넓어질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母校 人文大교수〉

## 「뜻밖의 전시회」

「뜻밖의 전시회」에 참여한 작품들은 종래 그들이 이용하던 무대장치와 의상을 이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때문에 어딘가 어설픈 연기자의 역할을 강요받고 있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다. 그것은 알고보면 관객이 영화나 연극을 통해 여태껏 보아온 그들의 고정적 역할에 과도하게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장소 : 동숭동 토탈갤러리
▲기간 : 3월 11일까지



▲윤영석 : 「The Net Work」, 1988, 5.5 × 4 × 4M
〈84年 美大卒 · 서울예고 강사〉

## 公演

▲서울모텟콰이어 창단연주회
— 3월13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

국내에서 보기드문 프로합창단으로 출범하는 「서울모텟콰이어」의 창단연주회가 3월13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열린다. 현재 서울예고에 재직중인朴治龍(86년 音大卒) 동문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초기 중세음악과 르네상스시대 음악중 국내에는 비교적 잘 알려지지않은 합창음악 연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정기연주회를 기획하고 있는 모텟콰이어의 이번 공연은 대부분의 멤버가 모교 동문들로 구성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최 : 아트피아

▲예음클럽 3월연주회
— 3월15일 예음홀

◇예음클럽은 15일 투일레와 뿔랑크의 곡을 선보인다.

매월 정기연주회를 갖고있는 실내악그룹 예음클럽이 3월15일 그 두번째무대를 마련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전에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퍼터리를 선보이겠다는 예음클럽의 이번 연주회는투일레의 6중주와 뿔랑크의 3중주를 선보이는데 각각 목관과 피아노의 음색이어울려 근대와 현대음악의진면목을 선사한다. 전원 모교 동문으로 구성된 출연진은 다음과 같다.(오보이스트는 객원)

韓基世(75년音大卒·플룻)·蔡一熙(77년音大卒·클라리넷)·李熙(65년音大卒·혼)·이재열(바순)·金寧姬(72년音大卒)·김용배(피아노)

프로그램 : 투일레(목관과 피아노를 위한 6중주 B장조, Op.6), 뿔랑크(오보, 바순, 피아노를 위한 3중주)

▲申洪均 문하생 호른향상음악회
— 3월20일 예음홀

KBS교향악단 호른 수석주자로 활동하면서 모교와 연대·이대·서울예고에서강의를 맡고 있는 申洪均(63년 音大卒) 동문의 제자들이 꾸미는 이번 발표회는 하이든·모짜르트·F쉬

本報는 이번호부터 文化面을 신설, 문화계 각분야에서 활동중인 동문들의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동문제위의 관심속에 本面이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전시·저술·공연등 자료는 동창회 편집실로 보내시면 됩니다.

## 故 손낙범교수의 遺稿로 남아있던 「한국고전문학론」이 後學들에 의해 간행됐다.

洛範교수(母校 師大)의 「韓國古典文學論」이 李乙煥동문(숙대교수·유고집간행위원회대표) 등 문하생들에 의해 발간됐다.

크게 韓國古代小說論·鄕歌文學·中世文學·論文·문하생들의 追慕記로 이루어진 이책은 평소 고대소설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탁월한 해석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한 著者의 면면이 집결돼있다. 저자는 이책에서 고대소설을 역사적으로 「成宗朝에서 高宗 甲午에 이르는 사이 창작 또는유전해 온 과거의 문화적유산」이라고 규정하면서 이것을 각각 사회소설·연애소설·가정소설·역사소설·괴기소설·탐정소설로 분류하여 고찰하고 있다. 특히 중반부에서는 淑香傳을 비롯한 고대소설의 解題와評說을 전개하여 後學들의고대소설에 관한 이해를 돕는 한편 저자의 고대소설에 대한 안목을 엿볼 수 있다. 한편 후반부에는 中世文學 전반에 걸쳐 저자만의 특유한 시각으로 국문학사에 있어서 중세문학이 갖는 의미와 그 양상을 전개하고 있다. 〈開文社 8천원〉

▲한국農學史

원로농학자 李春寧박사(母校 명예교수)가 「한국農學史」를 펴냈다.

이미 「朝鮮農業技術史」「李朝農業技術史」등의 저술로 농업사 연구의 독보적인영역을 개척해온 저자가 학계에서 최초로 通史的 방법으로 접근한 이책은 우리 농학사의 흐름을 개관할수 있는 역작이다.

1장에서는 선사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의 농경을 다루면서 우리나라 농업의기원을 밝히고 2·3·4장은 조선농학을 전·중·후기로 나누어 정리했으며해방후의 농학과 현대농학을 5·6장에서 다루고 있다.

〈民音社, 4천 3백원〉

## 新刊

▲韓國古典文學論
(孫洛範지음·遺稿集간행위원회 펴냄)

국문학중에서도 특히 古代小說분야의 원로이며 정확한 말풀이와 풍부한 用例로써 우리 國文學史에적지않은 업적을 남긴 故孫

# 새會員名單

## 學士

### ◇人文大學

#### ▲국어국문학과

김덕한 김선숙 김소희 김은정
김홍선 모현정 신주진 이선영
이영경 이정복 이지하 이호송
임태우 전은실 전재선 전지용
차미경 최미란 최인성 한미야
홍재범 황보나영 우드 정재민
신수정 임인호 최정환 김중식
최윤아 김대호 김병주 김용섭
김형근 박상준 반은송 이범준
차현인 박성훈 이용수 이재민
조만용 김재홍 (이상42명)

#### ▲중어중문학과

김월회 김진하 나선희 민정기
박재현 이정재 이종민 정해관
최영삼 김종찬 김태현 박회숙
김지회 신호현 이상봉 정창수
박정건 윤 창 정인효 천상현
최석우 윤재은 여시동 (이상23명)

#### ▲영어영문학과

강우성 김미수 김영아 김재성
박미향 서마숙 송정임 송지연
신영헌 안동현 안범진 안진아
유명희 유숙영 이용해 이은회
임인재 장문자 전혜란 조현영
김명수 마찌다 강의영 박혜영
신학용 이은종 최선영 김경자
라기서 손창기 윤준서 조경실
강대훈 박삼철 박선숙 안상욱
오철우 황유석 신용식 이인호
장제근 (이상41명)

#### ▲불어불문학과

고진하 김기환 김납연 김민경
김예령 김정수 김정효 박선화
박세미 박진희 성기완 이정민
이정하 이지영 이현근 장효주
정혜용 조정애 홍미애 강호균
강성훈 김정아 윤주영 이재일
최봉근 구홍택 김병찬 류우헌
정진우 김광혁 박승윤 이정훈
정상민 조규일 황인규 김유석
권기진 이종수 정진근 (이상39명)

#### ▲독어독문학과

박안수 박영수 이노은 이동우
이병회 이주호 이준서 전승일
정미경 정진택 정혁진 조연미
차문호 최영인 강미란 김병주
도츄호 강남규 박홍식 양우진
최세경 김동업 김태식 남궁찬
두성국 송석원 심권철 이득영
이장렬 전중문 조경훈 변재일
남상원 김진번 (이상34명)

#### ▲노어노문학과

박소연 양재훈 이수영 이 헌
전선경 최연수 홍수환 박현섭
김진철 박기원 박장윤 윤성혁
이국향 유종식 (이상14명)

#### ▲서어서문학과

곽지현 김현승 박현주 손영창
신상호 윤지영 이지호 장병회
천동수 하동수 허나윤 이영숙
박정미 강은수 김종호 이경노
이경윤 이민섭 전의재 (이상19명)

#### ▲언어학과

정덕교 김용준 김정은 박정준
박치원 박현숙 박형길 배문한
오현균 이용광 안성환 장원철
허연미 하야미 이현주 남택범
이경훈 정명종 노용식 이상규
박병용 (이상21명)

#### ▲국사학과

김영미 김종임 김 호 송영진
신원근 심재우 유경재 이승연
이용환 정진영 조이현 주혜경
한순회 한정우 허영란 류기선
박규한 이경구 이관형 이철호
김학규 윤종빈 김문숙 서경배
신재국 이희중 최용규 안유택
유기홍 신현길 (이상30명)

#### ▲동양사학과

도광오 이용규 이은정 최영인
김명규 김정화 이명신 이보영
손홍수 신형준 김 철 김화녕
박찬철 이창회 이태화 정장열
최영은 현창민 김회갑 연준혁
김민석 정지석 (이상22명)

#### ▲서양사학과

공정미 김광훈 김영신 김윤경
박성수 박정아 백영경 송철순
신미경 윤우식 이건협 이현주
이현주 장석환 정혁진 황대현
김석주 이동기 강석천 공영호
김치하 김현준 박홍식 천영식
최석연 김성용 박춘근 배태섭
유형근 (이상29명)

#### ▲철학과

김수길 노대용 박창환 이경신
이석재 전재정 최영재 최영호
김정희 김주연 문봉진 이의석
최화림 최 훈 김형석 이성진
임채문 차연화 허기복 김길오
양철우 이기성 추영철 홍인식
김인년 송해광 (이상26명)

#### ▲종교학과

권선일 박진원 심백섭 최종성
김도원 계명희 박용대 안효열
유병수 노성용 김범준 최진호 (이상12명)

#### ▲미학과

강기정 김세화 김신현 김한승
서현선 이영창 전상화 최 석
계두원 김성전 류지원 신성용
허원순 배금주 위대선 박계남
이호석 심선보 양순호 신 철 (이상20명)

#### ▲고고미술사학과

김용하 도유향 선 일 송종숙
신정원 안형주 양정우 임상태
조현수 최 훈 권중영 조형동
홍형우 고성준 김경태 (이상15명)

### ◇社會科學大學

#### ▲정치학과

김명준 김영진 김정원 류재성
박광석 박성윤 박 외 박장희
방민수 방성수 송평수 윤종구
이일청 이정민 임재성 정승은
정용수 정태웅 조원표 조정호
차동옥 최순영 홍태영 김희제
조인성 주재술 류필수 한석종
박인성 손관수 이용운 임종훈
천세익 박찬수 안 식 박송구
박병정 (이상37명)

#### ▲외교학과

강대수 강정회 권 욱 김은정
김현철 노남주 류종오 박성우
박전식 박종경 박치헌 서권식
송정아 신영수 여승배 이경진
조주현 조춘호 주용우 채태준
최석훈 최영한 김영욱 박승지
박세훈 김성배 김태석 문유미
박종석 송혜현 윤석준 이동윤
하동완 김성호 황승배 강원국
김상훈 박종석 이형종 안영환
정현석 정현용 한희철 김태광 (이상44명)

#### ▲경제학과

강대창 강삼모 강선철 강인구
강인중 강인철 곽재곤 권오덕
권혜진 김근영 김가영 김대중
김선호 김성현 김소영 김영민
김영태 김원정 김일구 김재호
김정환 김종철 김주영 김준오
김 진 김진영 김진형 김태호
김태환 김형진 김호성 노범석
류상민 문동민 박왕규 박재홍
박지웅 박지형 박진규 박철원
박현숙 박형수 배의권 백성준
빈재의 서석환 서장원 서정민
서창녕 송상우 신동석 신동화
신종훈 신현덕 신현태 신현호
신훈식 안철효 안형의 예창섭
오석태 오준환 옥우석 유창범
윤창배 이경삼 이경직 이규호
이덕구 이동구 이동구 이동언
이범석 이보성 이상규 이상직
이상헌 이순호 이재호 이종철
이중교 이중렬 이창엽 이호준
이호중 임범상 임병동 임일섭
장효곤 전민규 전상태 정대덕
정병규 조영신 조좌진 주현우
진수홍 최상웅 최원호 최준하
최지철 한정희 현봉수 김중섭
김봉근 이형석 서동욱 강일진
고명섭 권성민 김근주 김동업
김문수 김인호 김장전 김재윤
김준범 김 현 박배형 박찬균
박형수 서민영 송준석 안상훈
우영일 이언석 임방호 전상옥
정박문 함우동 홍승석 고광효
고 훈 류진학 신태호 이상용
이성훈 정성진 최성수 홍장호
강승일 김규일 김대웅 김원배
남광현 박용덕 양창수 오정호
이강호 이경섭 이수봉 이철승
전종병 최우승 한상영 강신태
이상수 이순우 (이상1백58명)

#### ▲국제경제학과

강동수 곽근훈 곽은상 권승인
김기수 김명준 김승진 김영님
김장렬 김진성 노건기 도태호
마상준 박근호 서강현 송우영
송재민 신광철 신현민 심규민
안덕근 안재완 우해영 이대원
이서원 이장혁 이재량 이재범
이주봉 이준규 이준엽 장성호
장운호 정현석 지진호 채진원
최동규 최창호 박지형 기 정
김동호 민용식 서혁진 선경태
신상명 이강욱 이상규 이영심
이용혁 이호국 정연억 최한우
김경모 이기선 강용호 권의준
김납호 김성열 김영완 김평만
남궁길 박권태 박숭희 박용북
박종원 서명국 이권병 이승건
이형준 임대영 정연오 하창원
한용재 강효석 고헌주 윤종인
황태연 김훈식 정은호 (이상79명)

#### ▲사회학과

강병규 김기용 김매경 김상협
김재영 김태선 김 혁 남상석
류양지 박경숙 박기용 박회제
서우석 성기홍 신지원 이준희
이호영 인수범 임상철 정재훈
김동선 류지선 문석영 박종인
조혜정 김대환 김석오 노홍형
박영주 변민선 박순진 윤영상
이병한 홍종필 이종훈 유강근 (이상36명)

#### ▲인류학과

곽경수 김상희 김정연 박영효
서현점 송해석 이영진 이윤선
이윤정 장호준 정신혜 정은주
주영기 최재혁 홍기범 황용기
김경미 김희경 양한순 이동채
이성구 강덕운 윤주필 이충훈
김용식 노용해 안은상 김정열
조항민 국철희 민관홍 (이상31명)

#### ▲심리학과

권성연 김계환 김영회 김지현
라원희 신자경 신창숙 양기원
윤준희 이대곤 이동귀 이병주
이종훈 임지영 장주미 정대영
정동희 최진남 박정현 이세기
장미영 전영한 김시환 임광식
강성수 고제영 이성철 이원익
이종석 최진우 홍단식 김희준 (이상32명)

#### ▲지리학과

김경호 김상빈 김성준 김이곤
노봉균 박상일 오일오 유중철
윤현철 이수찬 이정훈 임만식
조성태 조창현 조현제 진선임
최종남 황철수 박수진 신성일
최정애 허 현 고길석 고창국
박옥주 이병선 이장룡 김병권
손진영 위정환 윤영찬 이동한
이만재 임채의 전병윤 하태봉
구영삼 주은영 (이상38명)

#### ▲사회복지학과

김진구 문지태 민주홍 박병근
백일현 송경우 송기룡 안형준
이채원 조남숙 조일원 진재문
최인호 허승필 송경옥 박 홍
이용석 조홍수 홍상옥 김균영
이화순 임승순 조남규 김군기
김연지 박병진 이갑호 이봉현
이상범 이상영 김서용 (이상31명)

---

**業卒 소감**

**沈百燮〈人文大 宗教學科〉**

## 和而不同하는 同窓會로

## 자신밖 울타리도 봤으면

「동창회요? 글쎄, 한마디로 바라고 싶다면 「和而不同」이라고나 할까요. 저자신 재학중에 피상적으로나마 알고 있는 서울대학교동창회는 타대학과 달리 사뭇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전학년 평균학점 4·17점(4·3점 만점)으로 올해 인문대 수석졸업자인 沈百燮군(人文大 종교학과·30세)은 재학중 학과친구등과의 교우관계를 통해 성숙된 인간으로 변해간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교수님들 특히 지도교수였던 鄭鎭弘(종교현상과)교수에게 감사드린다고。

앞으로 대학원에서 韓國宗敎史를 전공하겠다는 沈군은 현재 자신이 몸담고 있는 현실에 대한 새롭고도 깊이 있는 시각을 갖기 위해 아직 국내에선 걸음마 단계인 한국종교사를 택하게 됐다고 한다. 중·고교시절부터 老·莊사상등 중국철학에 심취해온 터라 앞으로의 전공공부에 도움이 될것같다는 沈군은 재학중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점을 이렇게 말한다。「종교학이 서적의 경우 京城帝大시절에 구입한 책들이 대부분이라 많은 애로를 느꼈지요。앞으로 학교는 물론、동창회에서도 후배들의 면학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도서관문제에 눈을 돌려야 할것 같습니다」

沈군은 12년만의 대학졸업이 결코 자신에게 있어 마이너스만은 아니었던것 같다고 학과의 행사라면 하나 빠지지 않고 참여할만큼 『科 전체의 화합에 관심이 많았다는고 자부하는 沈군은 앞으로 동창회가 서울大人뿐만 아니라 민족최고의 지성으로 서로 화합하되 자신들밖의 울타리도 생각해볼줄 아는 자세를 갖추었으면 좋겠다고 一針。

---

#### ▲신문학과

강건욱 고영직 권석창 김규숙
김윤철 김형곤 남인용 민병우
박재용 윤동률 이용찬 이은진
임성철 주형일 홍찬기 황정임
박성호 조유현 윤수영 김석권
김인수 이교욱 홍용가 박기완
송지현 이동구 이영호 이영희
장우종 정기원 홍덕기 조영화
서경선 (이상33명)

### ◇自然科學大學

#### ▲수학과

강병재 김경석 김덕기 길동렬
김동현 김상준 김연하 길준우
김홍찬 박혜성 반준화 성명회
송경회 오석회 유봉섭 유현석
윤종철 이남용 이두석 이완복
이원석 이인협 이준호 장원재
장정옥 차기현 황승주 정연수
최부용 김용일 김인강 김종명
민재식 박경열 양세형 이지웅
조효동 황은영 전승태 백윤경
이한복 황순욱 김의현 김권식
황철연 (이상45명)

#### ▲계산통계학과

이의목 강기훈 강봉남 고덕현
구자현 김계운 김광영 김기병
김병관 김수화 김승곤 김영길
김진용 김태형 김현섭 류연승
박경은 박용규 박은숙 박 혁
손난주 심대외 심준호 양은규
우황준 원유집 유찬석 이광재
이병정 이상훈 이승종 이용회
이윤식 이종권 이주홍 이준수
이태훈 임수미 장문석 장준호
전용석 조성호 최선호 최승훈
추광호 하태년 하태홍 황희진
강용언 고용기 고재호 김경식
김정환 김종준 이덕신 조석주
조광현 윤재철 권종걸 김창룡
박기순 양재찬 (이상62명)

#### ▲물리학과

강승우 강신규 강치중 공기정
권열균 김귀선 김납중 김동진
김득년 김미영 김범준 김영민
김종길 김필립 김형찬 김호철
노재동 노화용 문경섭 박원규
박종권 박현서 백민석 서동우
송정섭 송필헌 심경진 양시훈
오재철 윤복원 이규철 이남경
이병철 이수열 이준걸 임명신
장성식 장지훈 조월령 지승훈
최영호 하택집 홍승훈 황설문
황주동 정수민 황창수 김상미
김석현 김창현 김현주 문희종
성맹제 유석동 이관수 이석영
정호진 최규완 김병우 강태민
김종건 박인석 백승원 한동훈
김승찬 이상도 하상용 김성호
김장현 유상준 (이상70명)

#### ▲천문학과

김정훈 김철한 박기열 박수종
박종서 최용준 최찬경 김성철
이연수 이영구 서준석 김효령
신범식 (이상13명)

#### ▲화학과

강윤경 김광표 김동훈 김병옥
김상일 김 수 김승모 김재훈
김종훈 김 진 김진아 김하영
남미순 류요섭 문봉진 박상기
박은숙 박정배 박주상 박형순
박홍근 서동균 안상정 안철균
엄상섭 윤철환 윤태성 이경권
이경훈 이광호 이근택 이분열
이상복 이시근 이영호 이재준
이태우 이혁준 임상규 임재승
장윤회 장준경 장창수 정은희
정혜경 조성찬 주범준 진화일
차병철 차주연 최소희 최유식
최준호 최철호 태진성 황승구
김광호 박상현 신진회 오애순
이경준 이보영 박영만 현상옥
권윤상 김은수 김화섭 안탁영
백용호 (이상69명)

#### ▲식물학과

김민주 김진실 류승진 문용환
민금숙 박상규 신재웅 양용성
옥정현 이명애 이 이 이현우
최은영 최호순 고세리 이명길
이분례 최석근 조용회 (이상19명)

#### ▲동물학과

공화배 김근일 김상수 김진오
김창덕 김태윤 배금종 성재영
우강미 유해용 이동기 이임회
이재일 이정은 전섭호 정광호
홍선표 홍성인 성낙진 이미숙
정연두 (이상21명)

#### ▲미생물학과

박채규 강호정 김상구 김종안
김지윤 김철현 김형태 김혁표
박현웅 변종회 윤강순 이 준
이철주 이화신 정재훈 차창준
천종식 홍석종 박이하 이강석
길주환 (이상21명)

#### ▲대기과학과

고일남 김영아 김현주 김홍래
백희정 이승호 이정환 정필선
황승언 김일웅 문수영 박석우
김경덕 심재면 최광현 한종일 (이상16명)

#### ▲지질과학과

권성은 김경태 문성수 박승규
박정호 서한교 신경진 양열우
어도용 이광진 장준호 전병칠
점태호 조윤호 한 찬 김진철
신동훈 박진영 최영근 양용주
이영호 전인성 박민규 (이상23명)

#### ▲해양학과

곽유상 김계영 김범수 김상문
김용환 박열준 박준용 박철민
심원준 오현석 윤상선 이광수
이호진 장찬주 정명진 한상준
홍선옥 황열순 김종현 김형찬
안경식 이민우 조형래 하기갑
길홍범 신동호 엄두용 박 인
송원영 신영용 홍인기 박웅식 (이상32명)

### ◇家政大學

#### ▲가정관리학과

김윤회 명은숙 박경원 박미선
박영숙 박 진 박희성 배회분
신동순 신을진 신지아 양 희
유미옥 이성미 이신회 이연회
이영미 이은경 이진은 장형숙
전혜경 정경미 지인숙 차현주
최미혜 최수진 이순주 김안라
박미정 송지회 이은미 이성옥 (이상32명)

#### ▲식품영양학과

강정회 김미경 김미숙 김부자
김숙회 김순덕 김영민 김원경
김정아 김종숙 김지성 노혜경
박영회 백혜나 손회정 송효남
신경회 신은주 오소회 윤은미
윤주영 이겸회 이명선 이은영
전아다 정영임 정인수 정인순
주성미 최경숙 최기보 최미선
한영신 홍혜정 김혜정 박헌회
오지은 조상구 (이상38명)

#### ▲의류학과

김경옥 김소회 김영란 김정아
김지수 김지은 김현숙 김현주
나영은 나유신 류정아 민수인
박난회 박복남 박수정 성윤금
송혜선 위수영 윤혜영 이경와
이선영 이승혜 이옥기 이은숙
이주연 장은정 정인회 정정란
지현정 채영미 최세완 최현용
황은실 강은미 손인숙 최은하
최지원 홍미란 최지영 (이상39명)

### ◇經營大學

#### ▲경영학과

강만희 강선섭 권도우 권오성
권재민 김경륜 김기풍 김기현
김남준 김도현 김동수 김동완
김동현 김동회 김범수 김상규
김상우 김석원 김석준 김순남
김열곤 김영태 김오훈 김이태
김재문 김재준 김종민 김종화
김춘수 김춘휘 김태균 김태형
김태환 김하엽 김현준 김현중
김현태 김철동 김형준 김홍택
나석권 나성찬 나주범 나한선

나형균 민병진 박상욱 박용배 박찬용 서경옥 서준호 손우영 송희성 안규환 양국진 유재영 윤지명 이동현 이상준 이승화 이익찬 이준서 이한상 장문석 전용주 조민식 조수범 진주태 최종윤 한경호 한종길 황성원 채병권 김병석 문치영 임정근 최성호 김용진 성기만 임홍규 전기수 김동완 박승태 안용수 이명찬 이헌석 임평규 정민우 최병노 박종봉 구용회
남형석 박 건 박서정 박종호 박희준 서대철 석완주 손창수 신상철 안병옥 엄정환 윤상현 윤필환 이병길 이상철 이용윤 이재혁 이준엽 이호영 장승한 정경희 조성민 조철환 최무진 최종화 한영철 함형태 황원일 김정아 김석규 배순주 조두환 최유삼 김 윤 윤종태 장세종 강성일 김인곤 박헌영 오민철 이선완 이환인 임현진 조현근 최현지 장민수
류강석 박기상 박성진 박주선 백승훈 서보성 성우용 송인섭 신충균 안상순 우경재 윤석경 윤학노 이상용 이성봉 이용인 이재환 이중석 장기복 장제화 정용의 조성수 조현덕 최승호 하승한 한홍석 홍성균 황현순 하호섭 김진혁 배추용 조우성 홍기두 김호현 이승엽 조규성 고재범 김종균 서병갑 오창민 이승현 임 유 전대현 조혜섭 홍전기 성현인
민경락 박남기 박수민 박지원 변창우 서종수 손기태 송호석 신형덕 안상훈 원성범 윤유영 이기호 이상욱 이성수 이용재 이춘근 이창권 장동철 전영재 정태화 조성은 지성배 최재혁 하찬기 한광식 황덕규 전은석 곽용석 김홍범 송인준 조 철 권복기 성기동 이진용 최강진 김 광 김철식 송문규 위재인 이철재 임진환 전용관 조환기 김기윤 기준동 (이상2백29명)

## ◇工科大學

▲건축학과
강경수 김성원 김종혁 박구연 서상식 윤정현 정금배 조정구 한이수 김광호 박상욱 홍병만
강 현 김수미 김태만 박내영 신용석 이상전 정석보 최성범 허은영 김우영 양인호 이재성
김명선 김승욱 김태진 박영민 오정은 이재룡 정성문 최은아 류규석 노영호 한경훈
김민기 김양우 문종우 박훈영 유은종 임미나 조인성 최홍준 정경심 정민철 박병일 (이상46명)

▲공업화학과
곽상현 류세열 박성용
김병수 류창열 방정식
김요왕 류호영 양영렬
김진옥 박성기 오명환
오세원 이상수 이정익 조정희 황교현
유용섭 이상협 이희영 최동만 이성호
이민수 이영준 전일환 추광호 남이현
이상기 이재신 정규열 허 철 장인성 (이상32명)

▲금속공학과
강신철 김병국 김진용 박재열 서원석 이국배 이숭복 임도현 조준호 한종철 서일석 유제원 옥순영 이광복
권혁문 김병준 김진원 박재현 성환진 이병윤 이용기 정대현 주재현 한홍남 김창경 윤길수 김종원
김경현 김송일 류시양 박철호 손동기 이상걸 이익성 정상훈 최일규 황규호 박주현 이상엽 이원주
김납석 김진수 류호준 백승재 우치구 이석윤 이주완 조규중 한성완 황윤성 오진석 정 경 이상길 (이상53명)

▲기계공학과
강형석 김영환 김현영 박삼진 손동기 안경관 윤명곤 이동재 정재동 최성규 박일훈 최명식
고성석 김진권 김희준 박성열 손정옥 양윤원 윤명근 이원형 조성권 한풍규 이종헌 이시우
권오명 김진운 나병철 박종필 신수호 엄용기 윤홍열 이재연 조희래 길용석 한능우
김연순 김충회 나지욱 박희권 신지영 유영은 은석현 장근석 최명렬 김세훈 박화준 (이상46명)

▲기계설계학과
강동민 김경모 김영수 김현석 박 헌 신기훈 오준동 이동활 이영환 장상귀 정 윤 이경석 이강화
강윤호 김대현 김우정 남기형 배석훈 심재관 윤성만 이상윤 이존옥 장춘근 조한상 이억기 김영경
강지윤 김동춘 김정모 문종신 서가찬 안세진 윤용섭 이수종 이 진 정상철 허인국 조덕제 이재영
강흥대 김동현 김정우 박동철 서범석 양재봉 이계정 이승호 임성수 정용배 현용탁 김선만 (이상51명)

▲산업공학과
강국창 김연섭 박종헌 이수강 장진태 최영환 홍수길 김현동
고영관 노정호 백상엽 이재호 지철규 김광석 육태선 정회민
김범수 류호성 신인섭 이치근 천석범 양권승 양금엽
김승욱 박용로 유석규 장무경 최상용 이창화 장유식 (이상30명)

▲섬유공학과
김경우 김익홈 노영욱 서종원 오득환
김민균 김주용 문수진 성기범 이광복
김성철 남기현 박재용 신종욱 이성춘
김성태 남영식 박종휘 심상범 이재환
이정선 조재옥 홍광덕 문대신 김도윤
인성남 채석훈 황성덕 안민식 유광재
장복남 최기대 이은숙 박정진 조경구
정진태 허 준 김형경 정명국 남기윤 (이상40명)

▲무기재료공학과
강영석 김윤수 박장규 성우경 이기춘 진성태 김용진 이수민 조영찬 이승현
고수남 김종표 박태호 송성수 이동헌 최상준 배윤호 정용근 차기옥
공선식 김현우 방 옥 윤성균 이용의 최윤순 안경모 권오훈 김준영
김영석 김형준 배승영 윤혁준 장진옥 최정혜 유도준 안정균 양성석 (이상37명)

▲원자핵공학과
강연문 김태형 박병기 이재일 최동옥 안 현 김태주 이용화
김병철 김회령 박성주 인용균 김광수 이상일 노복길
김상호 남영석 윤종일 임채영 김종량 한석중 유성태
김창석 문주현 이관철 조진영 배원석 장춘화 윤 철 (이상29명)

▲자원공학과
곽성일 김현섭 이상헌 장영철 최해문 정종세 최완주
권기진 박권규 이정근 장태현 이영곤 구희종
김동각 박장회 이정동 전병복 제일권 김주철
김부환 이동성 이태종 정재훈 최기환 박춘원 (이상25명)

▲전기공학과
강성철 김성동 김정호 박용환 송민호 심동춘 유상윤 이상용 전기역 조경래 표재확 김영민 이동휘 노진호
김근환 김 욱 김진만 배상혁 신범재 양 경 유열준 이용태 정세영 추인수 완모아 김종만 이종규 박경철
김기홍 김인철 김홍봉 서상원 신창훈 양승춘 이명진 이종명 정윤권 최우석 살 빈 엄윤섭 장성만 김정호
김병구 김재주 도현호 손동욱 신홍민 오광훈 이병윤 이철휴 정호관 최지훈 마 린 윤지호 전대영 천준호 (이상56명)

▲전자공학과
강동수 김동환 김현철 모경구 박상규 박철우 신용섭 이광욱 임종한 장지영 한동진 허준호 박희권
고준모 김상호 김형집 문 용 박성수 백승원 양정훈 이동규 임준희 정상헌 한석원 현재영 백승한
권오상 김지윤 나경민 박동구 박성용 성원진 여주천 이상보 장성의 최보경 허서원 강만희 우순석
김동호 김한석 나동원 박민수 박찬범 신동춘 유정호 임승재 장준호 최정필 허성욱 박종우 최도선
이수량 이준후 (이상54명)

▲조선공학과
강성진 김동철 민경재 신상훈 유병석 장필식 최정록 김성렬 류재훈 김승엽 정수용
강중규 김영환 박용진 양종서 윤규식 정성천 이재혁 김재수 박형돈 박종진 최원석
김갑수 김현규 손창영 양태현 이권재 정춘면 고영국 김정원 안진형 이중호 양만용
김동규 류재옥 신상옥 오승록 이신형 주원호 권우철 노윤선 이형철 허영구 (이상43명)

▲토목공학과
강부식 김종화 박장호
강재원 김태녕 박재현
권오순 류종우 방은영
권재승 박성용 백승인
송호성 이만수 이우석 정상화 최병철 박병철 김상민 김형태 박인기 장윤배 정대석 김재철
양진익 이승원 이준서 정운용 하동호 하상길 김상민 김 훈 이병길 정상혁 정대훈
여인호 이영경 이지훈 조창빈 손윤호 김종희 김재옥 김희준 이상경 허동윤 정경태
이계회 이용일 장영일 최명진 정근영 홍성영 김한승 박기영 이승록 이동우 황병오 (이상57명)

卒業소감

# 國內최고의 엘리트로서 和合하는 모임체 되기를

李恩慶〈家政大 가정관리〉

『국내 최고의 대학에서 정규교육과정 16년을 마무리한다는 것이 제게는 더할 수 없는 긍지와 기쁨을 느끼게 합니다』 사뭇 상기된 표정으로 졸업식장에 들어선 李恩慶(家政大)양에게 졸업하는 소감을 묻자 선뜻 나온 한마디.

李양은 동창회에 관해 『재학중 별반 관심을 갖진 않았으나 뭐랄까요, 우리 민족의 속성이라는 모래알같다는 인상이 들어요. 모쪼록 일부 동창들끼리의 모임이라는 양상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최고의 엘리트로서 보다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동창회가 되었으면 해요』라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졸업을 맞아 그간 한울타리에서 수학하며 정을 나눈 학우들과 뿔뿔이 흩어져나가는 모습이 한편으로 안타깝다는 李양은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서울대생들이 「나혼자만」하는 풍토에 젖어 자신을 제외한 주변에 무관심해지는 것같다며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화합하는 서울대학교가 되기를 바랬다.

졸업후 자신의 모교였던 염광여고에 교사로 부임한다는 李양은 『제가 1회졸업생인데다가 졸업생으로는 처음으로 모교에 부임한다는 사실이 무척 기뻐요』라며 앞으로 교단에 서서도 서울대인이라는 긍지를 잃지 않겠다며 동창회에 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모든 행사에 빠지지 않겠다고 한다.

후배들에게는 부디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는 李양은 재학중 자신을 지도해준 교수님들 특히 玉先花교수(가족학)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다고 한다.

▲항공공학과
강병삼 김용빈 서수길 신의섭 이용교
구남서 김진희 성창윤 안병호 이춘호
권오채 박홍복 송창식 양철호 전인수
김상원 백동현 신동의 이수창 전희전
정경진 지선호 최용삼 김일곤
정석영 한영민 문성환 이기남
정성일 김인찬 정한설
조진연 이상헌 김복래 (이상34명)

▲화학공학과
강병일 김승환 남선경 박용철 선우기병 윤준성 이재호 임동희 정민영 차형준 한재현 강경보 홍영표 반용찬
권영운 김태영 박남수 박지호 소순탁 이강옥 이종천 장성화 정창옥 채종현 허남현 김찬수 우길제 지용회
권원식 김한성 박문철 변길석 안성희 이민기 이해정 장창수 정현석 채회엽 홍진기 신원동 전경석
김동옥 남동수 박승구 석정일 유인경 이재우 이훈기 전영찬 차태병 최은수 황장연 허 범 황대식 (이상54명)

▲제어계측공학과
구경훈 김성원 김정균 박시영 서창원 원영준 이인규 정도형 하태균 배병우
김면집 김시현 김현수 배본호 송황준 유호선 이진구 최유진 홍복영 이계성
김명찬 김영훈 류문호 백 훈 신형균 이승배 이형근 최진우 황병구
김서규 김용호 박병현 서영수 여훈구 이신호 전홍주 추상훈 박성준 (이상38명)

▲컴퓨터공학과
강중빈 김성표 김효정 성원용 심병훈
김나리 김순철 노병호 송윤석 안상준
김동옥 김진수 문의선 송재경 양승현
김변구 김진영 박성재 신병석 오창훈
유관희 이종우 장충순 한영규 김한수
이 강 이춘화 전의섭 최영훈 박석봉
이장호 이해진 정종식 김동호 채진석
이재원 임동현 조진형 윤형식 장영승 (이상40명)

## ◇農科大學

▲농학과
권오정 박평수 임동주 황경원 서광훈 박중석 서경윤 하태웅
김정수 윤오준 임영선 김신일 우용호 김관수 류동열 류상용
김종이 이광홍 정재태 김재범 이정득 김종환 임동순 윤태윤
김주양 이귀진 조규탁 김종수 김원일 김회찬 임호진 (이상31명)

▲원예학과
강병철 김현옥 원지영 홍경래 김문희 구기준 윤재섭 전희권
김도선 맹선배 이종희 홍성자 김소영 김정수 이기엽 김현철
김영주 백진회 조화진 안영희 구외석 배권태 이종민 김동희
김현문 송기환 최영도 권미정 김순이 송윤섭 이광진 (이상31명)

▲임학과
김경훈 유종근 이용옥 정인애 류재덕 장의양
김인식 윤희선 이우상 진선필 양창호 최동옥
김정욱 이강오 장철환 차동호 이정자 최선민
신하균 이경아 장호찬 김혜경 이형규 양희동
전재원 권영현 이광원 박동선
조영호 김규환 이성영 김참식
홍성훈 박지훈 정종성
고민종 안국상 조재구 (이상38명)

▲임산가공학과
김병용 심국보 이호균 강병훈 황백선 박문수 이도엽 최경택 최장규 김명길
김현우 유현석 임원우 이근육 황재민 박석원 이상원 최광찬 강찬의
노재훈 윤영기 장재곤 김인옥 김상대 박영율 장길호 최성길 강우중
문계호 윤정숙 최원실 홍호진 문규흠 박흠철 정현화 최성희 강진오 (이상37명)

▲농화학과
강민형 김정섭 김홍석 유 선 정용화 황유식 윤화중 김옥환 김병원
강수일 김종률 류광현 윤기도 정채훈 김남철 정근우 윤여승 이진광
김강민 김헌덕 백동명 이근호 최진남 김재연 김남일 최병갑 강대기
김금숙 김형민 신동해 장철희 최진혁 송상종 김두형 강동회 (이상35명)

▲식품공학과
김경은 김영석 변정구 안동군 이성락 전정열 이수복 유진선 김두원 박장우 정일석 조한진
김동영 김은희 성찬용 우의전 임춘호 한봉관 이정우 이병호 김재홍 오 섭 정창호
김병기 박동원 송상훈 이상준 임형권 김홍수 조흠과 한광득 김형규 윤종수 박선택
김석현 박주헌 신민철 이설규 장민석 안치영 홍성철 김관우 박순기 이병준 조영래 (이상45명)

▲농경제학과
김대웅 위용석 이 훈 최운기 심재현 김용주 이인록
김태철 윤원철 정무철 홍승지 조상연 김지완 정화양
안동환 이장희 채지원 권대철 홍양현 남기현 박성호
오영덕 이정철 최민식 김병기 김동민 백승근 (이상27명)

▲축산학과
강정윤 김인배 김홍대 이정래 정재진 박형일 전 종 이익보 최윤석 장수원
김낙환 김종림 손훈남 이현성 조세열 윤민식 강보희 이홍환 마종선
김무진 김종철 유영수 임정만 함영화 임선택 박정환 장 명 함규호
김용기 김형선 이경실 임채훈 남경필 전대업 박총은 정종화 배극한 (이상37명)

▲천연섬유학과
남상래 제연호 신부철
박현우 조성욱 정재석
서상원 백경기 최용광
우순옥 성진환 (이상11명)

▲농생물학과
강효중 남면우 심민수 장기룡 이태행 오원식 좌남수 서종복 이정호 김동순 이원배 이봉훈
김동명 서을수 윤영채 안회석 김남대 이승화 김은주 안상선 이홍식 김진복 장동수 최재영
김용국 신상훈 이시형 원철희 김미선 이창훈 강현환 양경형 조원준 박수제 김성규
김진철 신용성 이충식 이계성 김수아 정병우 고영호 이영렬 김경환 윤석주 김일태 (이상46명)

▲농공학과
김민근 정세웅 노충주 김기범 박영육 이기은 김영헌 박수기 이명화 이재우 장은배 노경도 박왕근 최민석
박창범 홍은수 임성만 김민수 백승훈 조홍진 김재웅 사욱환 이병웅 이종순 황춘화 지석근 여원구 최용준
이도일 박변진 고종필 김춘섭 송한용 한종희 김택수 심규돈 이승훈 이해충 류동수 강용희 이정관 허제한
임현식 윤성필 공수영 박남주 이강인 김대훈 박길배 심의찬 이원상 임병화 김진천 노태석 이진우 황재영 (이상56명)

▲농가정학과
고정숙 김옥숭 김하욱 배명옥 유소이 이진현 정은주 황은경 이도화
김명주 김인숙 김현주 안수경 이경희 장명숙 최형자 이희숙 김미혜
김보경 김정화 박미나 양삼례 이은경 정수진 하윤명 정미경 전효숙
김영애 김진원 박복순 염희경 이정희 정은전 허영희 채말여 (이상35명)

▲농업교육학과
김건우 이기수 민태선 송영준 최영복 안병준 박종락 정승현 위성식 김경준
성병환 정일영 양진모 유석원 한광희 김정균 송기훈 최상규 김경모 오종철
송기숙 조광진 이석렬 유열목 홍양선 김홍일 이장욱 황재규 손철룡 남동현
안태홍 조문식 김헌북 장순석 김종운 류해강 이정택 김형도 전원영 강석남 (이상40명)

▲조경학과
김권수 박현호 윤인규 이동흡 최연수 심선영 이석현 배우칠
김성준 송상철 윤인근 이재영 하성훈 최영주 이해금 김성진
김주미 양석주 이경욱 이찬용 김명수 박영환 조영재
김태규 유연숙 이돈견 조윤철 신동석 송영배 권민원 (이상30명)

## ◇美術大學

▲동양화과
고석연 나용주 이경림 황숙자 함영준
김경화 문성용 이동일 차동하 박찬석
김선영 민재영 이영기 강성원 송완근
김혜란 송근영 조수예 고성원 이화용 (이상20명)

▲서양화과
갈 홍 김향남 이균순 이지민 허구영 김봉중 최성규 노희성
강재남 배준성 이상은 이지은 권래숙 이계원 최성원
곽인경 송영화 이수영 정윤희 박혜성 고진한 박상철
구정미 유승하 이승훈 한수정 최성희 이강우 박세현 (이상29명)

▲조소과
강신옥 김선영 방지혜 유세종 전태숙 박민환 안수진 정혜레나
고 연 김현경 소미영 유영란 정연복 박종만 이기칠
구성호 문은미 신미경 이상은 문 용 양성용 이상길
김기미 박선미 원종신 이창회 박광필 오승옥 이상하 (이상29명)

▲공예과
곽여은 박정원 허보윤 김현철
김경애 박지현 홍수원 장기훈
김영규 조정원 황지원 김선화
김혜린 주학로 최순규 (이상15명)

▲산업디자인과
김남숙 김정연 박정윤 윤정원 이혜령 한보환 김형준 문경규 배재호
김상규 김호정 소주영 윤형경 임상연 홍상진 이상용 이경석 조윤수
김소연 김희정 양진모 이상선 전영순 홍광현 이홍구 류보현 한철중
김수현 문선영 유우종 이승은 정은진 김아란 곽병두 서홍권 (이상35명)

## ◇法科大學

▲사법학과
강석완 권선기 김우수 김학춘 김회균 박규은 박재현 박현옥 신영철 윤승은 이민호 이재경 이송석 이충변
강 성 김경란 김주형 김한수 남순표 박성수 박종훈 배형원 안상렬 윤중기 이선지 이재구 이준가 이현수
공혜정 김도영 김진수 김한신 도진기 박 웅 박진영 서보형 안정호 윤지현 이영욱 이종기 이지현 이희영
권대열 김동민 김하늘 김현희 류경환 박장우 박해정 송재우 양계성 이동욱 이옥래 이종상 이진영 장원일

장익원 정섬원 조귀장 진경준 최강옥 최재혁 한찬식 황종우 구문갑 김상준 김외건 박규택 신철민 이상윤 이형철 최낙현 육성권 강을환 김병호 김 환
장 일 정은주 조성규 진옹희 최상묵 최종옥 홍동기 황치오 김광준 김성훈 김재곤 성기권 심원철 이용재 전종윤 최봉기 박재완 도정환 양규석
전승호 정지영 지석배 진창수 최승진 최진영 홍종희 황호동 김근웅 김윤범 목성호 성민경 양태경 이지형 조기룡 최창용 최성진 조양외 정태상
전훈일 정하정 지영난 천문국 최용석 한영표 황계영 김유동 김기경 김웅우 문상덕 송태석 이병석 이현직 조섬제 함상훈 홍대식 진태준 전정환 (이상1백33명)

▲공법학과
강기탁 권찬국 김봉석 김영환 노형석 백재명 송경근 안영환 이경휘 이윤호 이종혁 정서용 조재호 허재환 송혜영 김 준 박은희 신형일 정훈탁 최병협 허협호 김이찬 최남주 송종원 정대진 박용포 신동근
강성명 김계홍 김상우 김진성 박선경 서창우 송양수 양태호 이병삼 이정기 이해진 정성태 차맹기 황성태 권영빈 김충관 반창호 오재걸 조용재 최헌만 황희석 봉원석 한정회 안창환 차행전 조성현
강원석 김도형 김섭철 김태성 박효진 손 혁 신종팔 오정면 이석우 이종석 장인봉 정원순 최석문 이진우 김덕수 김호경 서민석 이상균 조우영 한범석 정석민 육대웅 김형일 이상규 최종석 김윤구
강종석 김범순 김영석 김현철 배동천 손희선 심상구 우병렬 이석우 이종하 장 찬 조용만 한재호 이민효 김안식 문병규 송영창 이성진 채석현 한영수 강경운 조현구 박규배 이종명 김현태 백태웅 (이상1백5명)

▲법학과
제철웅 (이상1명)

## ◇師範大學

▲교육학과
남지원 신종호 정길연 하창우
변영애 양명희 김동민 박재동
손민호 이향규 김원석 박종덕
송종진 최은영 김지수 (이상15명)

▲국어교육과
구은모 김지남 박판수 신혜영 정동화
김경도 노진한 박해정 이경회 정소현
김봉순 마광호 손예윤 이수미 주은경
김정자 박관호 손은주 장명순 추경연
하희정 김선경 정현태
현영림 오진숙
황미경 권혜경
황석연 정호성 (이상29명)

▲영어교육과
강유나 김윤정 나수경 송성덕 윤미정 장선희 최은영 황우연 문성현 홍성갑
강윤미 김정현 배경란 송영희 윤윤희 정미영 한현숙 최철환 박순회 이병우
곽은영 김종란 배해정 안경진 이경미 정유선 홍동욱 김영선 송성현
권갑식 김혜란 송미경 유경님 이회수 조명남 홍숙한 이성민 오동수 (이상38명)

▲불어교육과
고인숙 문성희 심재은 유문종
김미경 박은숙 이윤경 진경배
김은영 서혜령 조병우
김춘아 송주연 엄 훈 (이상14명)

▲독어교육과
강은미 서정헌 이은주 신정인 박진용
문지연 손영민 장 훈 김회주 이영진
박운영 손혜연 정혜경 박국진
방미자 신수원 채윤식 김수환 (이상18명)

▲사회교육과
김근회 유정화 임명옥 김진목 김수영
김혜련 장명옥 권후남 손종진
배은주 장선미 이의동 최성수
송홍석 정종권 김교열 한종필 (이상17명)

▲역사교육과
강설후 김양수 안경숙 장국천 송수납 조동근
강애림 김재춘 오혜숙 정선영 이은주 엄기환
강진희 김지현 유필조 한성욱 이재윤 오창훈
구민정 박지영 이종대 박형오 한지원 박찬우 (이상24명)

▲지리교육과
강향순 변영미 이미현 정수진 홍연재 김동명
김영현 심재화 이창용 정정랑 이은아 김민수
문대영 안선미 전수경 최은미 이용배 정병회
박경회 오세자 정미정 홍미혜 황병삼 조중걸 (이상24명)

▲국민윤리교육과
김영수 박현아 이관영 이은숙 정의근 임혜정 윤덕회
김영태 서승희 이근용 임상수 홍민식 조 진
김은숙 성태실 이석호 전은화 홍성자 조현만
박재영 오명철 이영순 전효진 이인영 배을규 (이상25명)

▲수학교육과
김남희 박수연 신혜선 이경아 이지수
김선화 박영회 심성아 이경화 이진주
문한규 서동엽 안인숙 이세호 조정민
박수경 신종입 여태경 이임순 조희경
지윤정 김지원 강운중
최병철 김진화 남기수
허미숙 이화림 김명근
김헌덕 이현철 이종석 (이상32명)

▲물리교육과
강화연 김정언 박현영 유재홍 정현민 박옥균 배만우 윤성일
고미경 김주애 박회정 이민재 채회종 양우철 이성만 이태만
김기순 문현주 손영란 이희선 홍명수 여진수 권홍주 변해룡
김범재 박인성 신태규 장현주 김형찬 조중래 박베드로 김성호 (이상32명)

▲화학교육과
강경석 김미영 송현우 이경회 장효순 최은식 정민환
고승혜 김수웅 신현숙 이미하 정원식 허은순 정연정
김노원 박미연 심정라 이재용 조성이 정관영 최범진
김미숙 박인숙 양승익 이재호 조원련 김회진 (이상27명)

▲생물교육과
김민향 류현경 방현숙 신윤숙 이지현 장윤정 최계남 여지은
김은진 박은지 백남진 어은주 이찬섭 장화실 최범선 정동곤
남정화 박재근 백승용 유해미 임 현 정은영 최정혜 윤소영
노유경 방소영 백인영 이선민 장내심 정혜옥 황인신 (이상31명)

▲지구과학교육과
강동희 김명화 김철희 서리화 이우향 최 숙 성민회 박섬근
구자옥 김선영 박병건 신예현 정은주 최은영 권정혜 조상제
김남수 김송자 박진회 오영숙 정재용 강신광 박용선
김명하 김수현 박혜란 이기영 정효숙 권오성 류형근 (이상30명)

▲체육교육과
강준호 김상경 김지혜 박일권 손호규 오수진 윤성호 이상우 이하노 임연수 조현호 탁정근 손병오 정상외 김헌영 박준호 조옥흠 이승태
강필중 김상복 김찬규 박창범 신창호 오연동 윤태진 이석호 이회철 임채정 최보혁 한중근 양익전 최은규 최중호 이근종 현종호 육동삼
고천석 김숭겸 김충곤 백창선 안재석 우상희 이경식 이창석 임기남 장계영 최상원 홍춘회 이만균 조병규 김봉선 이상북 황태윤 구한식
김동엽 김원도 문영호 손병일 엄우섭 유창완 이명아 이태희 임승준 전진경 최중철 권순용 장영진 김경백 박용건 이수만 서재형 홍창식 (이상72명)

## ◇獸医科大學

▲수의학과
갈두원 김경국 김현기 박성원 성제경 이병권 임진호 정희동 허준영 강환구 유성철 강대진 한명국 김남식 이병주 송보섭 이주하
강진석 김 규 남기환 박종임 오진식 이상록 장영승 최경철 홍성혁 손신균 이은섭 김용상 강 철 김준규 이성권 김재훈
구현욱 김옥진 도선길 박형서 우계형 이성수 정기명 최양규 황성욱 송성욱 함덕수 김준영 강태권 백진종 함회진 김진명
권태석 김정만 류덕영 배동회 윤영민 이현구 정지헌 한정우 감경윤 신영균 은규표 추수만 권순활 이금주 허송후 장기은 (이상65명)

## ◇藥學大學

▲제약학과
강인숙 김대석 박준성 신수희 이관희 이혜원 창동신 홍정호 안나선 장선미 이택섭
고원규 김명민 박진희 안재석 이응두 장동필 최승희 정회자 은경훈 강태규
고해영 김영우 박현경 오정숙 이진영 장성훈 최윤정 김혜경 이주옥 박형석
구자영 박성혜 송삼미 윤유선 이창용 주승재 한상법 김혜영 이금이 신용문 (이상41명)

▲약학과
강수연 김순복 김은영 김종주 박기숙 서영선 오연수 이현경 최혜정 호지숙 윤영주 김경아 김홍표
권영호 김승은 김인호 김진숙 박영인 성삼현 이남경 조윤희 하정은 이혜영 정소현 서동욱
김민숙 김욱연 김잔디 류근호 박정원 송혜경 이미엽 최영주 한혜승 김선옥 유현주 주정호
김수년 김용웅 김정애 박금낭 봉주희 여소현 이민경 최윤정 허순임 신현호 정기은 김양수 (이상49명)

## ◇音樂大學

▲성악과
권상윤 김은경 백선아 신형찬 이건옥 정연목 김미성 강기성 임한귀 김완주
김기숙 김은경 서승희 양형윤 이시복 조명희 김성일 김이곤 조병호
김동신 마광일 서은진 오애리 임은주 채은희 박선미 문형일 최영국
김미순 박현재 손 현 윤이나 임혜자 황애란 신진경 이태환 김영진 (이상37명)

▲작곡과
김규동 박진영 이주연 김세현 구경은 김휘정
김수정 온정헌 이현주 윤태규 김미경 이은정
김영아 윤지영 임종우 김진호 김정신 허지연
박준영 이원숙 최영아 유창훈 김홍중 (이상23명)

▲기악과
강수윤 김수연 김지훈 노점회 송윤진 이상미 이지연 정미현 천준의 박선회 구정희 김은주 박준영 신영미 왕혜진 이주연 정영실 홍충숙 김승복 박경미 임현철 한정훈 김동수
견종진 김언정 김태정 류진화 오지향 이선영 이형민 조경회 최윤숙 김지선 구지은 백승은 심수빈 유명정 일은숙 정은정 이 미 김하연 박은나 전은룡 김광원 박대규
공두이 김은옥 김혜진 박수현 용희선 이세리 임소인 조지현 편재회 양기훈 권삼회 민병회 송규호 양현주 이열주 장성은 조원정 홍기엽 도혜경 송주호 허혜주 이충환 이태행
권호정 김정회 노재아 배점인 유가영 이소연 장미경 차명순 한혜경 정경록 김영아 박미회 송현정 오 희 이은영 정남일 최애나 유재도 문영선 윤지원 박숙영 조관형 (이상91명)

▲국악과
강영숙 나동욱 신은주 이수경 이정원 허윤정 유녹양
김경아 남정태 유은선 이용범 임혜정 허지연 이용식
김은애 노순홍 유지은 이유나 최경순 곽태규 이종길
김은희 송인길 윤미영 이윤경 최혜경 김수현 (이상27명)

## ◇醫科大學

▲의학과
윤인영 김상육 배진호 윤삼진 강성욱 고영환 구진모 김경환 김동준 김민선 김상정 김성범 김용일 김재경 김진엽 김형곤 도진우 문병권 박건상
강용홍 김 윤 송종기 이기형 강신구 고태용 권범선 김대경 김동진 김병건 김석연 김승기 김용호 김종일 김철환 김홍첨 류송주 문철소 박계영
강진구 남기세 심우서 이창호 강원춘 곽호신 김경문 김덕원 김만호 김병모 김선미 김승철 김원석 김주철 김태호 김희석 명승재 민수기 박상재
권윤상 노경민 윤상기 탁양주 강혜영 구성회 김경선 김덕호 김명원 김상연 김성면 김용범 김의중 김 진 김현조 노영진 모은경 민승기 박상준
박석원 박재현 배남종 성승용 손정현 신경환 안재성 양종규 오현주 육의곤 이국행 이상헌 이용석 이의태 이중건 이철민 전득수 정재훈 조광태 조성찬 주영수 최국명 최윤미 최지원 허규희 홍준혁 김승건 남의철 서진수 임병철 전호수 김진구 황성옥 여정석
박원서 박정형 사동훈 성진동 송금영 신헌규 안형선 여에스더 우광훈 윤성원 이동영 이선영 이우진 이재경 이지회 이회수 전혜원 정주영 조문기 조재민 주진형 최동입 최은화 최지은 허우성 황우연 최일주 노상의 엄태현 장종경 정의홍 라기호 이동수
박인섭 박태원 서구일 손경수 송병호 심인보 안홍준 오현옥 원경란 윤영호 이동훈 이성회 이웅회 이준영 이직창 임도훈 정유석 정진화 조비룡 조정연 차훈서 최문석 최의성 하병근 현원석 황의영 이경훈 박용수 우홍균 전용순 최대섭 윤경호 한명준
박입순 박희관 서영일 손두곤 송종민 안광현 양규회 오영륜 유형준 이광원 이병재 이소영 이은봉 이준호 이창섭 장홍문 정재운 정해혁 조삼제 주권욱 채희동 최영호 최일훈 한상옥 홍영준 황정원 고재수 서주영 이동헌 전윤애 홍경만 정정유 서영조 (이상2백9명)

▲간호학과
곽성숙 김세영 김지윤 남은경 박윤영 복정회 안태사 유수정 이복난 이영화 이정회 장부영 정은주 천향미 최혜경 홍정회 김희정 최진선 조현태
김금년 김영숙 김하정 남종근 박정선 신은영 양화윤 유은주 이성회 이우경 이지연 장인순 성진숙 최미혜 탁성회 황영란 이꽃메 김기순 최희수
김명화 김주희 김현영 민하경 박찬숙 안숙연 오문숙 이경순 이송회 이은진 이현주 정성희 제은영 최준희 한명금 황정해 이현정 백영미
김묘경 김지영 남승남 박경숙 변선주 안인환 오영춘 이미영 성영주 이정연 이효원 정은미 천미경 최진아 현혜란 김숙영 전미정 유병림 (이상74명)

## ◇齒科大學

▲치의학과
박정곤 고현종 김기순 김민찬 김승수 김은형 김창우 류일모 문은재
안용석 권영완 김남규 김석규 김용대 김일영 김형석 맹영래 문창수
강인구 기회선 김미숙 김성은 김은숙 김정숙 김혜란 문성철 박문환
강충구 김근만 김미정 김세라 김은숙 김준헌 김희정 문은상 박민수
박민호 박수경 방극영 선예경 송명욱 오석배 유기준 윤효중 이명회 이수영 이재석 이종숙 이한욱 장묘안 전성원 정성념 조재현 최수영 허영성 여선구 유병남 김민석 신귀나 이승렬 전민용
박상욱 박종화 배원정 성수미 신명상 오장균 윤귀현 이광수 이병재 이승열 이정근 이종현 이현철 장미경 전현회 정윤호 지성준 최원수 홍경희 육강화 김금영 김선아 신동용 김호상 하정선
박성원 박혜금 백경동 손성호 신수정 우순섭 윤숙진 이기철 이봉호 이원영 이정숙 이창원 이효연 장복숙 정두헌 정정수 진경수 최지원 홍성두 이기오 김대정 김태승 심영옥 백운봉
박세운 박회찬 백정화 손영경 신용준 우승표 윤정혜 이도환 이삼선 이인복 이정태 이철희 임용식 장소희 정미영 정태종 진보형 최태민 황성립 김대웅 김동호 도명조 이광수 오동윤 (이상1백34명)

# 碩士

## ◇文學

▲국어국문학
강상희 박경주 이홍식 오영숙 이즈미
김경아 양명회 일주탁 이양숙
김외곤 이은경 한현종 이정애
노명회 이종묵 김경원 민경희 (이상17명)

▲중어중문학
고한석 안상북
김어진 노상균
김종미
김종섭 (이상6명)

▲영어영문학
곽은주 송기호 임보경 김광혜윤 이인아
김태원 신돈영 정준경
김태훈 오길영 하응천 박찬연
박희준 이시연 한점숙 이교선 (이상16명)

▲불어불문학
이성헌 한상회
정연복 장정애
주미사
최건원 (이상6명)

▲독어독문학
김영룡 장복회 최영진
소성민 최홍록 박미숙
윤종상 이재원 이재인
이해윤 정은혜 (이상11명)

▲언어학
김선철 김 중
신용태 박진희
신자영
신효필 (이상6명)

▲국사학
김재홍 윤경진
송호정 배우성
최연식 서성호
홍우택 이의명
김재순 김태웅 (이상10명)

▲동양사학
이근명 (이상1명)

▲서양사학
이채욱 (이상1명)

▲철학
신정근 양선숙 정은해
엄연석 오성현 홍건영
정원재 최국태
박 진 오중완 (이상10명)

▲종교학
이연승 (이상1명)

▲미학
권혁규 조진근
김수영 주성욱
신혜경 김희정
정성철 이진석 (이상8명)

▲고고미술사학
강회정 김용철 (이상2명)

▲사회학
구도완 백송옥 윤석구 홍기찬
김기훈 안정옥 정일균 홍성수
김형운 오한수 조정회 황정미
방해란 유 현 한 준 박태호 (이상16명)

▲인류학
오지은
정종호
유기선 (이상3명)

▲심리학
구자숙 이현정 이미경
김형준 정혜선 고옥회
심찬보 신현균 민병배
이재식 이경회 (이상11명)

▲지리학
구동회
박원석
송동호 (이상3명)

▲사회복지학
김기호 정원오 송귀회
김성한 공계순 우국회
김환춘 김실옥 유정임
오승환 김승재 (이상11명)

▲신문학
박시점 허 진
박효규 남인영
손승혜 성지혜
이태길 (이상7명)

## ◇政治學

▲정치학
강원택 박현모 최상연 정대화
김민전 신춘범 김갑천
김홍기 윤원영 김영수
김회철 윤정호 이성만 (이상13명)

▲외교학
강운안 구자룡 홍헌표
강경회 김대휘 김성대
강윤회 배경수 서명지
강인선 이섬철 김광태 (이상12명)

## ◇經濟學

▲경제학
강신욱 박도영 박홍재 신현준 윤기호 이숭렬 진동섭 류동민
김용도 박상인 방주영 안일태 이권형 이철회 한상규 이경미
김준석 박상춘 배현기 양영식 이상헌 이홍재 홍기석 이석기
김태종 박정수 백우진 유형철 이성표 정재헌 김경록 정태인 (이상32명)

▲국제경제학
김갑철 김창완 형남원
김상식 송종근 황준욱
김인철 진우석 한상범
김진일 최영수 신용목 (이상12명)

## ◇理學

▲수학
권오인 김현정 이창우 조승연 최영욱
김미영 변재영 임삼성 조윤회 김정식
김성재 윤양봉 장경수 조좌영 정두영
김용정 이기복 조도상 차영준 이한용 (이상20명)

▲계산통계학
권남건 박서영 윤은영 정도일 강영경 김양진 박진호 조성원
김수홍 백윤철 이용희 정숙미 강호석 김진흠 윤지숙 이도수
김지회 유준규 이형원 이용화 김규성 김 호 장수덕
노재회 윤경일 이후인 강봉주 김근식 박은식 조남건 (이상30명)

▲물리학
강대숭 김관식 김은진 김태석 나병철 류민선 박재모 송태권 윤두원 이정일 정종선 홍석륜
강숭구 김상균 김재우 김한철 남재국 박동수 박제근 신종철 이경선 임영안 정현돈
고관협 김성원 김춘기 김항배 남창우 박수호 박태선 오승석 이미림 장상현 조영걸
고의관 김승환 김찬주 김형도 노홍렬 박여병 박 혁 위재경 이정승 정기태 최미경 (이상40명)

▲천문학
김승리 신동엽 (이상2명)

▲화학
곽광훈 김옥회 김주현 노지애 빈창욱 엄무용 윤강식 이대성 이은미 이준구 이회원
김병주 김용성 김준영 박영상 서경재 엄수현 윤보언 이세영 이은선 이철범 장인태
김상균 김재숭 김진익 박정미 송남웅 오화섭 이경주 이승주 이정표 이태영 장주현
김수형 김정아 김찬우 박홍순 양민오 유재옥 이근우 이양숙 이정화 이회경 전표명

새 회원으로 入會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歡迎합니다.

오는 3월 31일 개최되는 同窓會定期總會(3面 총회 안내 참조)에 신입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年會費 내주신분

(理事 1월11일~2월25일까지
會員 1월11일~2월25일까지)

※ 人名밑의 원내 숫자는 각 동문들의 卒業年度임.

## 常任理事

▲李春根 齒大회장 20만원

## 理事

◇文理科大學

▲張河龜 종로서적센터회장

◇師範大學

◇人文大學

◇商科大學

▲朱世煥(52) 성남여고교장

▲朴旭圭(51) 한라시멘트㈜부사장

◇環境大學院

▲李仁遠 홍익대도시계획과교수

## 一般會員

◇社會大學

▲공종민(85) ▲김자영(87) ▲우종근(81) ▲임대희(76)

◇自然大學

▲이동호(85)

▲김 선(85) ▲박준우(86)

◇家政大學

▲이미숙(74) ▲유안진

◇工科大學

▲김원주(65) ▲문석기(85) ▲배기복(80) ▲부대진 ▲서석균 ▲이 관

◇農科大學

▲이명호(57) ▲이재섭(85) ▲이준우 ▲최동재(65)

▲김상문(66) ▲김필곤(66) ▲정돈철(72) ▲정민섭 ▲유달영

◇文理科大學

▲김용하(66) ▲황경호(68) ▲이정주(69) ▲차재호

◇美術大學

▲임우진(66) ▲진영선(68)

◇醫科大學

▲고영희(67) ▲공용조(60) ▲김창윤(84) ▲박청희(81) ▲이대규(53) ▲이명순(82)

◇齒科大學

▲이성근(77) ▲전길용(72)

◇大學院

▲유종호 ▲정진석(75) ▲최원영

〈21면에서 계속〉

의 설계 및 안정도 해석에 관한 연구

▲김경식 : 초기 배치를 위한 VLSI 네트워크의 일시 다중분할

▲고재진 : Horn 논리 절 질의어의 의미적 최적화에 대한 연구

▲박경환 : 규칙기반 자동 프로그래밍을 위한 프로그램변형 기법

▲강성준 : 증분 Galerkin 법에 의한 평판 및 보강판의 최종강도해석법에 관한 연구

▲이경중 : 물체와 자유표면의 교차점 주위에서의 유체유동에 관한 연구

▲윤종태 : 전해효과를 고려한 파랑추정모형

▲정신택 : 흐름이 존재하는 완경사 해역에서의 파랑 변형

▲김우종 : 시공단계를 고려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교량의 정적 및 동적 3차원 거동에 대한 연구

▲최홍식 : 표면 온배수 수치모형의 비교 평가

▲이상화 : 하구의 점착성 부유사 이동에 관한 수치모형

▲김선범 : 신구 도심부의 공간형성에 관한 비교 연구

▲박찬규 : 도시 오픈 스페이스 체계의 분석방법에 관한연구

▲김용우 : Copper Chromite 담지촉매상에서 $O_2$ 및 NO에 의한 CO의 산화

▲홍창식 : 파라핀을 채운 수평원관내에서의 축열 및 방열특성에 관한 연구

▲오전근 : 증상트리와 이상전파유향 그래프를 이용한 공정 이상 진단 전문가시스템 연구

### ◇農 學

▲서효먹 : 무우와 배추의 관수피해에 관한 연구

▲김홍렬 : 통일형수도 세포질적-유전적 웅성불염 계통의 육성과 그들의 조합능력

▲고희종 : Japonica형 벼의 세포질 웅성불염계통 및 그의 염성회복계통육성과 염성회복인자의 유전분석

▲유병일 : 산림조합의 발전과정에 따른 사업경영분석에 관한 연구-임산물 유통사업을 중심으로-

▲신언익 : 한우의 주요경제형질에 대한 유전모수와 선발지수의 추정에 관한 연구

▲정구민 : 소와 생쥐 초기난자의 체외 발생과 초급속동결에 영향하는 생리적·물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

▲양영훈 : 한우의 체중과 체척치에 대한 육종가 추정에 관한 연구

▲농야오 : 회장에 Cannula를 설치한 돼지에 있어서 조섬유 공급원과 수준에 따른 아미노산 이용률에 대한 연구

▲이영대 : 도시소유역의 유출해석을 위한 수학적 모형의 개발

▲최영수 :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한 수급식 탈곡기의 공급률제어에 관한 연구

▲김용현 : 플라스틱 온실의 열저장시스템개발에 관한 연구

▲송관철 : 제주도 대표토양의 Andic Properties에 관한 연구

▲임붕훈 : 공원잔디 공간의 레크레이션 수용능력에 관한 연구

▲안계복 : 누각 및 정자양식을 통한 한국전통정원의 특성에 관한 연구

▲홍승서 : 포도당 이성화효소 생산성 신균주(Streptomyces Luteogriseus)의 분리 및 효소 특성

### ◇法 學

▲김화성 : 헌법소원에 관한 연구

▲장경환 : 약속규제법 일반조항에 관한 연구-독일 약속규제법제9조를 중심으로-

▲이경운 : 대학생의 법적지위

▲김학동 : 표현대리에서의 거래보장의 한계

▲구충서 : 국가와 외국인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연구-중재에 의한 해결을 중심으로-

### ◇敎育學

▲황인창 : 교육에 있어서의 개인과 사회의 관계-플라톤의 '국가론'을 중심으로-

▲이인효 : 인문계고등학교 교직문화 연구

▲박대호 : 소설의 세계관 이해와 그 문학

▲정병찬 : 유토피아니즘의 분석적 연구-사회공동선을 중심으로-

▲김항원 : 제주도주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최돈형 : 중학생의 과학실험활동과 과학학습결과의 관계분석

▲정청희 : 운동의 반응 가변성에 관한 연구

▲정응근 : 메틀로퐁띠의 인식주체적 신체가 갖는 체육적 의의

### ◇獸醫學

▲장동덕 : 마우스와 돼지에서 Haemophilus Pleuropneumoniae의 협막성분에대한 면역원성과 독성에 관한 연구

▲조준형 : 계태아에서 Diazinon에 의해 유발된 골격기형과 Mineralization억제에 관한 형태학적 및 생화학적 연구

### ◇藥 學

▲곽효성 : 새로운 Hofmann 전의를 이용한 C-N 및 C-C 결합의 생성에 관한 연구

▲김광욱 : 민 백미꽃 지하부의 성분에 관한 연구

▲곽진환 : Bacillus licheniformis EMR에서의 마크로라이드-린코사마이드-스트렙토 그라민 B계항생물질에 대한 유도내성 기전 MLS 내성 유전자 ermk의 크로링과 유전자발현 조절기전

▲박광식 : 일차 배양 간세포를 이용한 Brazilin의 간독성 예방기전에 관한 연구

### ◇醫 學

▲이영진 : 태아및 신생아상피조직에서의 lectin 결합 특성에 대한 조직화학적 연구

▲이왕재 : 생쥐 비장에서 분열원질및 T 세포 의존성 항원자극에 따른 T 및 B 림프구 분포의 변화

▲이중명 : 생쥐 슬관절에서 관절강의 발생

▲강순웅 : ABO 혈액형에 대한 단세포군 항체의 생산과 응용에 관한 연구

▲이영주 : Hepatitis B Surface Airtigen에 대한 단세포군항체의 생산과 이를 이용한 방사면역법 개발

▲김웅국 : 흰쥐 간세포 일차 배양계및 전암성 병변에서의 Y-glutamyltranspeptidase의 과발현에 관한 연구

▲송형근 : 인체종양세포주들에 대한 재조합 감마인터페론의 세포살해능, 증식억제능, HLA 항원 표현에 관한 연구

▲이갑노 : 인체 폐종양 세포주에서 주조직 적합복합체(MHC) 항원 표현정도와 자연살(NK) 세포의 세포 살해효과와의 상관 관계에 관한 연구

▲이혜경 : Diethylnitrosamine으로 유도된 흰쥐 간의 태반형 Glutathione S-Transferase 양성 전암성 효소변이소 발생에 미치는 농도별 Aflatoxin $B_1$ 및 D-Galactosamine의 항진효과에 관한 연구

▲김석용 : L-interrogans DNA 반복서열의 클로닝

▲이희발 : 요독증환자의 면역반응 ; B형 간염백신 접종후 anti-HBs 양성반응자와 음성반응자 사이의 체외림프구 반응의 차이

▲윤성철 : 연탄가스폭로가 가토의 주요장기에 미치는 병리조직학적 병변에 관한 실험적 연구

▲유태우 : 일차의료 환자집단에 있어서 건강위험 평가법의 건강의식 모델과 건강위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임상실험 연구

▲위재수 : 우리나라 Spirometra sp. 조충의 실험실내 생활사에 관한 연구

▲허 선 : Fibricola seoulensis의 tribocytic organ 및 표피의 조직화학적 성질

▲윤태영 : 요꼬가와흡충 감염 흰쥐에 있어서 장 병변 및 장 상피내 림프구 증감에 대한 경시적 관찰

▲정현채 : 조직학적 만성위염의 병인으로서 Campylobacter pylori의 역할

▲이영상 : 흰쥐에서 혈청내 pyruvate kinase 및 fructose-1, 6-diphosphatase 활성도측정에 의한 간소엽 중심부와 문맥주위부 괴사의 판별

▲문희범 : 마우스 B세포에서의 interleukin 4에 의한 Ig GI 및 IgE 생산 조절에 관한 연구

▲송영욱 : 전신성 홍반성 낭창과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환자 혈청에서 항혈소판항체의 출현빈도 및 항원특이성에 관한 연구

▲신성해 : 이종이식된 인체 대장암에서 항 태아성암항원 단세포군 항체 IgG및 F(ab')2 분절을 이용한 방사면역검출법

▲이영현 : 실험적 급성 폐동맥색전증에서 Ketanserin과 Positive End Expriatory Pressure Ventilation이 혈류역학 및 환기에 미치는 영향

▲이원표 : 한국인 태아와 성인에서의 소장 미세융모막 효소에 관한 연구

▲성무경 : 실험적으로 유도된 간의 효소변환소의 남성편중 발생기전에 관한 연구

▲이경영 : 인체 암세포주의 MDR1 유전자의 발현도와 항암제 감수성에 관한 연구

▲전호경 : Difluoromethylornithine이 대장암 및 위암 세포주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 성 : Matrigel을 이용한 세포주의 기질장벽 침습도 측정에 관한 연구

▲김종화 : 생쥐 하수체 성선자극 호르몬 분비 세포의 개체발생 및 임신기간에 따른 변화에 관한 연구

▲윤보현 : 사람의 양막세포에서 Isoproterenol이 Progesterone과 Prostaglandin E2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

▲강병문 : 백서 신피막하 뇌하수체 이식과 Haloperidol 투여가 시상하부 LHRH 분비에 미치는 영향

▲김석현 : 성선자극호르몬 및 성장인자가 인간 난소 과립 막세포 배양시 estradiol과 progesterone 생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신손문 : 면역억제에 의한 마우스의 Cryptosporidium 발현 실험 및 충체의 형태 관찰

▲하일수 : 출생전 사람 흉선의 발달에 관한 연구

▲장동원 : 인체 신경세포와 흉선 T림프구에 공유되는 새로운 분화 항원에 관한 연구

▲이창인 : 전기경련충격이 백서해마 GABA와 Glutamate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의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택중 : 한국인 남자에서 Aldehyde Dehydrogenase I 동위효소의 변이와 음주특성및 만성알코올 중독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김인권 : 척추측만증 환자에서의 혈소판 기능에 관한 연구

▲오상빈 : 골육종 세포주에 대한 Adriamycin과 Cisplatin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옥일석 : 급성 뇌경색에서의 뇌기능 해리현상에 관한 실험적 연구

▲이상곤 : Gossypol Acetic Acid가 웅성 hamster의 생식기능과 고환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영상 : 연탄가스 폭로가 가토의 기도점막에 미치는 미세병리조직학적 병변에 관한 실험적 연구

▲신기철 : 주파수에 따른 Cochlear Microphonics와 Compound Action Potential에 대한 실험적 연구

▲박원웅 : 연탄가스폭로가 가토의 편도에 미치는 병리조직학적 병변의 미세구조에 관한 실험적 연구

▲차홍원 : 쥐 전층각막이식 model을 이용한 인체각막내피이식 ; 임상 및 면역조직화학적 연구

▲김종우 : 이중 Ruiz 각막절개술을 병행한 방사상 각막 절개술이 각막만곡도에미치는 영향

▲이인섭 : 원발성 광우각 녹내장의 방수내 특이단백 검출에 관한 연구

▲한준구 : 무수 에타놀의 백서 대동맥 주입에 있어서 주입속도에 따른 초기 색전기전에 관한 실험적 연구

▲이국현 : Venovenous Extracorporeal Lung Assist가 혼합정맥혈 산소화에 미치는 효과 : Double lumen tube에 의한 Venovenous bypass와 두 개의 카테타에 의한 Venovenous bypass의 비교

▲김대원 : 림프구 혼합배양에서의 림프구유약화와 인터루킨-2 및 세포상해성 T 림프구 활성의 경시적 변화에 관한 연구

### ◇理學(看護)

▲김금순 : 심도자검사에 관한 사전 간호정보제공이 스트레스감소에 미치는 효과

### ◇齒醫學

▲김현만 : 흰쥐 탈회경조직의 이식시 탈회정도에 따른 조직반응에 관한 연구

▲김석균 : 백서치은 접합상피의 이물투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김석연 : GABA 동작성약물의 진통효과에 관한 연구

▲장복실 : 이하선타액의 세균융괴 및 알칼린 포스퍼타제의 수준에 의한 streptococcus sanguis 균주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이광희 : Wrought wire clasp의 물리적 성질에 관한 실험적 연구

▲김영한 : 열처리에 의한 도재용 Ni-Cr 합금표면의 변화에 관한 연구

▲이종엽 : 유리단 극소의치의 지대치 운동에 관한 생체학적 연구

▲이호영 : 수종의 치근형 골내매식체와 조직간의 반응에 관한 조직학적 연구

▲허현도 : 치과용 아말감의 파괴인성에 관한 연구

▲권오양 : 치과치료용 약물이 치수신경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

▲황인대 : cyclophosphamide가 흰쥐 섬유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 연구

▲이범모 : Formocresol을 사용한 치수절단술시 Formaldehyde의 전신적 흡수, 분포 및 급성독성에 관한 연구

▲함병도 : Bacteroides forsythus의 항원 특성 및 조직독성에 관한 연구

▲최남섭 : Bacteroides intermedius의 항원 이종성과 조직독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손우성 : 대사성 산증, 기도저항 변화 및 미주신경 절단이 구호흡발생에 미치는 영향

▲홍성준 : 실험적 치아이동후 교원효소투여가 치근막섬유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기방사법적 연구

▲김형수 : 한국인태아의 악안면 성장 발육에 관한 연구

### ◇保健學

▲이인숙 : 지역사회 가정간호사업 실행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배상수 : 보건의료서비스의 배분적 정의에 대한 이론적 연구

▲정혜경 :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이 사망사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行政學

▲배용수 : 노동자의 자본, 경영참여에 관한 연구

▲이명우 : 토지이용을 고려한 소유역의 수질 예측모형에 관한 연구

# 博士學位수여자 명단(論文제목)

## ◇文 學

▲김승환 : 해방공간의 농민소설 연구
▲신법순 : 해방기 시의 리얼리즘 연구
▲민현식 : 후기 중세국어 시간부사 연구
▲이동근 : 조선후기 실존인물의 "사전"연구
▲김성언 : 한국 관각시 연구
▲송철의 :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김명호 : 열하일기 연구
▲김 근 : 한유의 경전해석에 있어서의 언어관 연구
▲박운석 : 모순문학사상 연구
▲장정희 : Thomas Hardy 소설의 여성연구
▲이병춘 : Roles of Verbal Heads and their projections in English
▲이성복 : 네르발 시의 역학적 이해
▲전명애 : 「CHANSON DE ROLAND」을 통해본 고대불어의 특징
▲송세호 : H. Broch의 소설 "Die Schlafwandler"에 나타난 인식과 구성의 문제
▲정지창 : 호르바트의 민중극 연구
▲손숙자 : 국어의 부가어 연구
▲김기홍 : 삼국 및 통일신라기 세제의 연구
▲지두환 : 조선전기 국가의례 연구
▲강희경 : 신흥공업국가의 계급의 공간적 분화
—한국과 대만의 선중간 계급을 중심으로—
▲조성겸 : Fishbein의 다차원적 태도 모형의 타당성에 관한 검증연구

## ◇哲 學

▲강돈구 : 한국근대종교운동과 민족주의의 관계에 대한 연구
—종교민족주의의 구조적 다양성을 중심으로—

## ◇政治學

▲손문호 : 고려말 신흥사대부들의 정치 사상연구
▲이성형 : 라틴아메리카 사회구성체 논쟁

## ◇經濟學

▲박정수 : 한국의 지역별재정귀착에 관한 연구
▲윤진호 : 한국의 불안정취업층에 관한 연구
▲이헌창 : 개항기 시장구조와 그 변화에 관한 연구
▲강남훈 : 가치와 생산가격이론에 대한 연구
—전형논쟁을 중심으로—
▲이재희 : 한국의 독점자본형성에 관한 연구
—제조업 99 대기업을 중심으로—

## ◇理 學

▲신동윤 : Matrix Normed Spaces and Injectivity Preserving Maps.
▲김동수 : Isoperimetric Inequalities for Minimal Submanifolds.
▲석경하 : On Asymptotically Optimal Plug-in Band-wiath Selectors in Kernel Density Estimation.
▲황형태 : A Study on Empirical Bayesian Multiple Comparision Procedures.
▲최안성 : 새로운 감수율 산출이론과 이를 통해 얻어지는 몇몇 단순 및 전이금속의 전기적, 자기적 성질
▲최제영 : 가적격자 모형계와 등각 불변성
▲왕한철 : β-락탐 항생물질 유사체들의 합성에 관한 연구
▲김미숙 : 특정부위 유전자 변형에 의해 돌연변이된 B. licheniformis 알파— 아밀라아제의 반응속도 파라미터의 측정
▲김한수 : 액정 중합체의 상전이 현상에 관한 통계열역학적 연구
▲이점숙 :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 염습지의 조위구배에 따른 염생식물의 정착에 관한 연구
▲이현환 : Serratia marcescens 로부터 새로운 단백질 분해효소 유전자의 cloning 및 대장균내에서의 형질발현
▲박종군 : 진핵세포에서 절제회복의 중합기작과 poly(ADP-ribose)의 핵내효소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
▲김세재 : 노랑초파리 α-glycerol-3-phosphate aehydrogenase 유전자 좌위에 대한 발생 유전학적 연구
▲최완성 : 흰쥐 뇌와 생식소에서 GnRH mRNA의 동정과 발현에 관한 연구
▲강해묵 : 생쥐 난자성숙과 초기배아 발생과정중 단백질 합성과 인산화의 변화
▲이병주 : 흰쥐 시상하부 GnRH 뉴론의 분자적 조절에 관한 연구
▲최인순 : 효모(Saccharomyces cerevisiae)에 있어자외선에 의한 절제회복 관여
▲이오형 : Bacillus subtilis 내생포자의 발아를 촉진하는 요인에 관하여
▲Moamen Hasan Doraydi: Drosophila melanogaster 에 있어서 su(s) 억제 유전자의 작용 대상인 Tryptophan oxygenase의 순수정제 및 특성
▲박석환 : 삼척탄전과 충남탄전 석탄의 암석학적 지구화학적 연구
▲하비드 무다자 칸(Abid Murtasa Khan) : 경북 성주군 수륜지역내에 산출되는 고령토의 광물학적 및 성인적 연구
▲전승수 : Sedimentary processes, Depositional environments, and tectonic setting of the Uhangri Formation, southwest Korea
▲최진용 : Depositional Environments of the Coarse-grained Sediments on the Continental Shelf of Korean Seas
▲조 영 : 젖산균과 온도가 김치발효에 미치는 영향

## ◇經營學

▲오용규 : 실증적 회계이론의 방법론 검토
▲김상기 : 한국증권시장 규제에 관한 연구
▲송석훈 : 생산직근로자의 직무소외적 행위에 관한 사회학습론적 연구
▲이경환 : 경쟁우위를 위한 생산전략에 관한 연구
▲이영덕 : 한국 해외직접투자기업의 국제현금관리에 대한 실증분석
▲권해도 : 소비자 만족에 관한 연구
—기대불일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 ◇工 學

▲조희철 : 건축적 체험의 본질과 장소의 성격에 관한 연구
▲홍대형 : 개암사 대웅보전 건축형식에 관한 연구
▲오양기 : 한국의 명료도 시험기준의 설정및 그 건축적 적용에 관한 연구
▲이영근 : 건축물의 부위별 결로현상 분석 및 그 대책에 관한 연구
▲현창택 : 건설공사에서 합리적인 원가절감 방법론의 개발 및 전산화에 관한 연구
▲허명재 : 합성 프리캐스트 프리스트 데스트 콘크리트 중공 슬래브 시스템의 휨 내력에 관한 연구
▲안경환 : 거주후 주거환경 평가 방법론에 관한 연구
—3대가족형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이재훈 : 심상(Mental Image)에 의한 건축공간구성 방법에 관한 연구
▲고성룡 : 노인을 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계획 연구
▲김정호 : 폴리스티렌/폴리아릴레이트블렌드계에 있어서 폴리스티렌—폴리아릴레이트블록 공중합체의 역할
▲임기철 : 메라이트 촉매의 흡탈착 특성과 에틸벤젠의 탈수소반응
▲강형 : 소량의 Al이 과공석 고탄소강의 초소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태수 : 불연속섬유 및 입자강화 알루미늄합금의 계면현상과 기계적 성질에 대한 연구
▲송용설 : 기계적 합금화법에 의해 제조된 Ni기 초내열합금의 기계적 성질
▲이희웅 : An-Sn 합금의 내부산화 특성에 미치는 첨가물의 영향과 내부산화시의 표면현상에 관한 연구
▲박현식 : 기계적 합금화에 의한 Fe— 반금속계비정질합금의 형성과 비정질 분말의 성형에 관한 연구
▲허강헌 : 무전해니켈합금도금층의 미세조직과 상변태
▲김완수 : ASEA-SKF 정련로에서 전자기 교반시 유체유동에 관한 수치해석적 연구
▲이상우 : 망냉각면에서의유동 및 열전달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홍성인 : 강—소성 대변형 유한 요소법을 이용한 판제압연 연구
▲김철 : 결손확률 모델에 의한 취성 재료의 파손확률 해석에 관한 연구
▲김수룡 : 수산화아파타이트분말합성 및 치밀화에 관한 연구
▲김명철 : Perovskite $La_{1-x}Sr_xFeO_{3-\delta}$의 고온 전기 특성
▲황규홍 : 이중조직을 갖는 지르코니아요업체의 열—기계적 성질
▲이상호 : HIP처리에 의한 $Al_2O_3$ 소결체에서의 기공 소멸
▲원중연 : 일반 다중 선택 배낭문제
▲지병철 : 띠연신 PET 필름의 구조와 성질
▲이철주 : Poly (arylene Etherketone)의 구조와 물성에 관한 연구
▲황승상 : 액정 고분자의 고차분자 구조가 유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송영수 : 회절 지오토모그래피를 이용한 영상구성에 관한 연구
▲이홍희 : 속도 및 위치검출기가 없는 영구자석 동기전동기의 벡터제어
▲최익 : 기준모델적용제어에 의한 영구자석 동기전동기의 서보제어
▲김경서 : 슬라이딩 모드에 의한 유도전동기 위치제어 시스템
▲이진우 : 저압방전 램프의 전기적 특성 모델링
▲김정부 : 분할법을 이용한 최적 조상설비계획
▲이홍재 : 전력계통의 고장진단에 대한 전문가 시스템의 적용
▲위상봉 : 전자기적 방법에 의한 도체 및 복합 자성체의 물성 측정
▲이호진 : 초안정도 접근방법에 의한 안정한 기준모델 적응제어기의 설계에 관한 연구
▲정종대 : 자기동조 제어기

〈20면에〉

# 母校소식

## 3월2일 入學式

### 冠岳캠퍼스 体育館서

90년도 신입생입학식이 3월2일 오전11시 관악캠퍼스 체육관에서 거행된다.

趙完圭총장을 비롯, 전임총장 동창회및 기성회 이사, 교수등이 참석하는 이번 입학식은 국기에대한 경례, 학사보고, 선서, 문낭독, 기관장소개, 식사, 교가제창순으로 진행되며 수석입학자 포상은 종전대로 각 단대별로 하게 된다.

# 44회 學位授與式 거행

## 學士4천4백44·碩士1천7백58·博士2백18명 배출

## 總長賞 同窓會長賞 単大별로 시상

◇冠岳캠퍼스 종합운동장에서 거행된 제44회 졸업식 광경

모교 제44회 학위수여식이 지난 2월26일 오후2시 관악캠퍼스 종합운동장에서 거행됐다.

趙完圭총장, 崔圭鎬동창회장, 전임총장, 명예교수 및 교수, 학부모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學士 4천4백44명, 碩士 1천7백58명, 博士 2백18명등 총 6천4백20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날 식은 사회자의 개식사에 이어 국민의례, 교무처장의 학사보고, 학위수여, 축가, 총장식사, 졸업생인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자리에서 趙총장은 식사를 통해 『여러분은 우리사회의 진통과 갈등이 가장 극심했던 80년대 후반기에 대학생활을 보내면서 권위주의의 질곡이 우리의 희망을 억누르고 사회의 발전과 正義를 가로막았을때, 방관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살신성인의 의기를 보여주었다』고 전제, 『민주와 자유가 존중되는 사회건설에 큰몫을 한 젊은 세대라는 긍지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趙총장은 또 『여러분은 사회에 나간후에도 민족통일을 주도하는 세대로서 긍지를 가지기 바라며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정세에 탄력있게 대응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확고한 토대위에서 통일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추진하는 능력을 더욱 발전시켜 줄것』을 부탁했다.

한편 단대 수석졸업자에 대한 總장상, 동창회장상시상은 각단대별로 하였으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總장상

△인문대 : 沈百燮(총교)
△사회대 : 吳碩泰(경제)△자연대 : 朴弘根(화학)△가정대 : 辛銀珠(식품영양)△경영대 : 崔鍾鶴(경영)△공대 : 崔姬蕙(무기재료)△농대 : 崔鎭奐(농화학)△미대 : 金香南(서양화)△법대 : 金都泳(사법)△사대 : 李姬仙(물리교육)△수의대 : 崔慶哲(수의)△약대 : 吳正淑(제약)△음대 : 金貞姬(기악)△의대 : 具璜謀(의학)△치대 : 白定和(치의학)。

◇동창회장상

△인문대 : 李悳廷(동양사)△사회대 : 金正煥(경제)△자연대 : 金仁康(수학)△경영대 : 金南淮(경영)△공대 : 鄭都亨(제어계측)△미대 : 高錫妍(동양화)△법대 : 陳炅準(사법)△수의대 : 張基殷(수의학)△약대 : 張成黨(제약)△음대 : 文馨逸(성악)△치대 : 文聖喆(치의학)。

## 鄭德教군등 7명 早期卒業

한편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7명의 조기졸업자가 학위를 받았다. 이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鄭德教(언어)△鄭章洙(중문) △尹鍾彬(국사)△李義極(계산통계) △朴彩圭(미생물)△曺圭成(경영) △崔元實(일산가공)。

「社會調査10년」 발간

사회과학연구소(소장 : 최명 교수)는 지난 1979년부터 1988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실시한 사회조사자료 22건을 정리하여 자료집을 발간했다.

## 國際學術交流협정 체결

### 헝가리 부다페스트工大와

모교와 헝가리 부다페스트 공과대학교간의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되었다.

지난 1월25일 趙完圭총장이 헝가리를 방문하여 부다페스트 공과대학교의 Lajos Fodor총장을 만나 체결한 이번 교류협정은 작년 10월 학술회의차 방한중이던 Tama Lajos 부다페스트공대 총장이 趙完圭총장과 면담하면서, 양교간의 학술교류가능성을 논의한 후 그간의 검토와 실무적인 절차를 거쳐 이날 체결되게 된 것이다.

부다페스트 공과대학은 헝가리 굴지의 기술관련 분야 대학으로서, 우리나라의 對東歐圈문호개방원칙에 따라 체결된 이번 협정은 모교의 학문연구와 양국간의 우호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趙完圭총장은 헝가리 방문일정중에 칼마르크스 경제대학을 방문하여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관련기사 5面에〉

# 새 齒科病院이 세워진다

## 國內 최대규모로 92년말 完工

### 舊 창경國校 부지에

모교 齒科診療部가 새로 건립된다. 3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오는 92년말에 준공예정인 새치과병원은 지하1층, 지상8층에 연건평 4천3백47평의 규모로 하루 1천여명의 외래환자와 40병상을 보유하게 되는 국내 최대규모의 치과병원이다.

새병원에는 기존 9개 과외에 수술실, 중앙공급실 및 전산실등을 갖추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교수, 전공의, 간호사, 치과위생사등의 인력중원은 물론 3백대의 유닛체어를 설치하는등 조직, 인력, 시설면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게 된다.

구 창경국민학교부지에 신축될 새병원은 치의학분야 국가중앙의료기관으로 치과진료업무와 전국 치과대학의 교수요원 및 치과진료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새로운 치과진료기법 개발과 치의학연구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치과진료부의 교육, 연구및 진료공간을 확충하여 최신시설을 갖춤으로써 명실상부한 국가의 치과병원으로서의 그 기능을 완수하고, 치의학 발전과 국민구강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세계속의 치과대학병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다는 큰뜻을 지니고 있다.

총공사비는 820억이 소요되며, 기타설비로 OECF차관 7백만불이 투입될 예정이다.

## 卒業制花

86년 3월 3일 종합운동장에서 4천8백30명의 신입생들이 각자의 희망에 젖어 새로운 삶에의 도전을 시작했다. 그당시 전국공동수석으로 모교 경제학과에 입학했던 吳碩泰군은 사회대를 수석으로 졸업, 4천여명의 학사졸업생을 대표하여 졸업인사를 낭독했는데 남들은 한번도 하기힘든 수석의 영광을 두번이나 차지하기도.

작년부터 전체수석이라는 개념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최대의 관심사는 전체수석. 올해에는 화학과의 朴弘根군이 평점 4.22라는 경이적인 점수로 전체수석을 차지했다. 단대 수석졸업자중에는 역경을 극복하고 인문대수석을 차지한 종교학과 沈百燮씨도 있다.

올해에도 7명의 조기졸업자가 배출됐으나 미생물학과 朴彩圭군을 제외한 대부분이 이전에 다른 학과에 적응하지 못해 새로이 대학생활을 시작했거나 중간에 군복무등의 휴학을 거쳤다. 대조적으로 서양화과 노희성씨는 73학번으로 입학해 17년만에 힘겹게 졸업하는 경우. 노씨는 76년1학기 유신치하에서 학생운동과 관련, 제적됐다가 88년 재입학하는 우여곡절끝에 대학생활을 마치게 됐다.

한편 사회구성체논쟁의 주요논객이었던 이진경씨는 작년에 통과되지 못한 졸업논문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와 국가독점자본주의」가 이번 학기에 통과됐지만 지난 1월17일 국보법위반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구치소에서 석사졸업.